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움직이는 표지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05

S-OIL MAGAZINE
MAY 2019
VOL. 450

 **S-OIL**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 **WORK EFFICIENCY**
WORK & LIFE BALANCE
업무 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한다.
직급별 순차 대면 보고보다 이메일을 통한 동시 보고를 적극 실행한다.
사전에 약속된 미팅 시간을 준수하고,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한다.
- **OPENNESS**
CREATIVITY
직원이 먼저 말하게 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한다.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한다.
-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를 갖추고 배려한다.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을 요청한다.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 **EMPOWERMENT**
CULTIVATION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을 돕는다.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보내준다.
직원의 직무순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MAY 2019

VOL.450

COVER STORY



OPENNESS CREATIVITY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

칭찬은 인적 관리를 위한 수단 차원을 넘어 조직 전체 운영에도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관계론의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는 반발심 없이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의 말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이고 근거가 확실한 칭찬이라면 더할 나위 없고 '고마워', '대단해', '잘했군' 같은 세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칭찬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우리

04 핵심가치 히어로

[Best Performer]
이재환 사우(PX생산1과)

06 핵심가치 현장

고분자제품개발팀

08 고전 속 핵심가치

[정도] 불기암실
어두운 곳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

10 달리는 희망 주유소

스마트주유소

12 가족 추억공작소

김계록 사우(품질관리팀)

14 달콤한 퇴근길

정상완(동력7과)
[프리다이빙]

16 함께하는 풍경

- 감동의 마라톤 참가기
- <아름다운눈빛미술제> 관람기
- 산악회 정기산행기

20 두런두런 이야기방

- 히말라야 여행기
- 일본 다이센 자전거 라이딩 후기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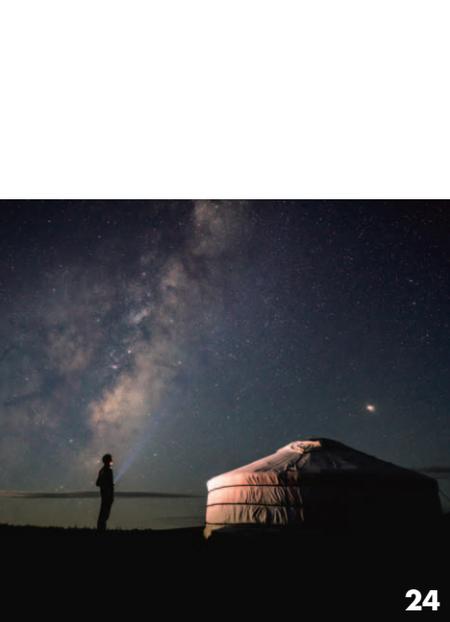
10



12



14



24



40



함께 보는 세상

24 꽃청춘 수학여행
5박6일 초원 위 별 헤는 밤
[몽골 유목체험]

28 마을숲을 걷다
하늘 닿는 소나무 끝,
평안과 구복의 기도
[속초 도문동 상도문 숲숲 &
양양 조산리 조산송림]

32 성장달력
긴장과 이완 사이 줄타기
[협상력]

34 화학 속 인생법칙
행복의 확률 높이기
[오비탈]

36 취미탐구생활
[활동형] 취미 정보

38 캔버스 연구실
연금술 & 파르미지아니노
<목이 긴 성모>



성장의 S-OIL

40 주요 경영활동
• 챔피언스 클럽 시상
•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후원·연주회

43 단신
• 사우디아람코 우수 합작투자기업 어워드
3년 연속 수상
• 중국 상해 LNG2019 콘퍼런스 참여
• 울산대병원 '닥터 카' 후원 협약
• 서울사회복지간기대회 후원
•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민해경 콘서트>

46 햇살나눔
• 제주 햇살나눔 캠프

47 임직원 동정

50 독자마당



최고 향한

최선의 몰입

[Best Performer] 부문 표창자
이재환 사우(PX생산1과)

안전한 PX 흡착제 교체, 경제성 향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만큼 환경 안전과 성과 달성은 선후경중을 따지기 어렵다. 안전과 성과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은 더욱 그러하다. 아로마틱생산1부 PX생산1과 이재환 사우는 2018년 3월부터 총 94일 기간 동안 PX 흡착제를 안전하게 교체, 최적의 실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함께 힘쓴 모든 직원을 대표해 올해 CEO 표창 시상에서 ‘Best Performer’로서 상을 받았다.

원유는 정유공장에서 납사 정제한 뒤 이재환 사위가 담당하는 생산과로 넘어온다. 이때 개질반응을 통해 여러 화학물이 나오는데 파라자일렌센터에서 이 물질들로부터 PX를 뽑아낸다. 하지만 경제적 수명이 다 된 흡착제를 쓰면

경제성과 생산량에 치명타를 입게 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흡착제를 교체해야 한다. 바로 지난해 이재환 사위가 진행한 작업이다.

PX 공장 정비기간은 우리 공장에서도 비교적 긴 정기보수(T&I) 기간을 요한다. 3개월이 넘는 기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이다.

“공정부서에서 PX공정 프로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걸쳐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핵심 공정인 만큼 성공적인 교체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특히 작업 승인자인 생산과장으로서는 책임감이 무거웠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체 튜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최적화 조건 발견

정비기간 동안 흡착제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흡착제가 들어가는 타워 안은 12개 베드로 구성되고 각 베드는 16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타워 안으로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위아래로 오가며 일종의 크레인 장치가 무거운 흡착제와 내부장치 등을 실어 나른다. 흡착제 자체는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알갱이에 불과하다. 이런 알갱이가 모여 무려 1천200t 이상이 타워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게 관련 부서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는 것 또한 이 사우의 몫이다.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작업 위험성을 평가한 뒤 도출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했고 정비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비가 끝은 아닙니다.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는 일이 남았으니까요.”

협업은 겉으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업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각 부서의 경험이 검토할 부분을 도출하고 접점을 찾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유관부서와의 협의하고 운전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려해 적용한다. 물론 흡착제 라이선스 회사와 교체 작업을 함께 수행하며 튜닝을 거쳤지만, 협업을 통해 우리에게 맞는 최적화 조건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섰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없이 운전조건을 높이거나 낮춰보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계속 만져보며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조건이 PX 리커버리 99.2%입니다. 라이선스 회사조차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반응이었죠. 찾으면 더 좋은 길이 있더라고요.”

흡착제 교체 뒤 7~10월 기간에만 총 95억 원 이익을 실현했으며 12월까지 172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더불어 PX생산1과는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2018년 기준 약 63억 원을 절감해 역대 가장 좋은 실적을 달성해냈다.

중간 관리자 역할에 최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혁신의 동력은 사라지게 된다. 혁신의 힘은 소명의식을 갖춘 실



주요 공적

- ▶ 성공적인 흡착제 교체
- ▶ 주도적 튜닝 작업 수행
- ▶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 재무적 성과 창출

행자로부터 나온다.

“중간 관리자는 소통 통로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많은 상사에게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환 사우는 2017년 3월 PX생산1과장으로 부임해 PX 흡착제 교체라는 막중한 업무를 부서원과 함께하면서 중간 관리자로서 소명감이 더욱 깊어졌다. 또한 더 나은 길은 반드시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모두 한뜻으로 뭉쳤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몇 십년간 에너지 절감이나 업무 효율을 높여온 선배들 덕분이죠. 후배들은 그것을 도약대로 삼아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 더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재환 사우는 지금의 운전조건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으로 늘 현재를 점검하며 묵묵히 안전의 가치를 실현한다. 🌱





가능성을 혁신으로!

고분자제품개발팀

우리회사가 RUC·ODC 프로젝트 완수로 실현해 나가는 수익성 증대와 사업 영역 확장 일로 속에서, 고분자제품개발팀은 기술 개발에 매진해 힘을 보탠다. 기술과 안전의 균형을 찾아 최적의 결과물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하고 실험한다.

축매로 구현하는 선도적 기술

고분자제품개발팀은 중합(重合) 축매의 종류와 반응 조건을 달리하며 실험 연구를 거듭해 최적화한 고분자제품 생산 기술을 구현하는 팀이다. 고분자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폴리머(Polymer) 가운데 우리회사는 새로 구축한 설비를 통해 범용 소재인 폴리프로필렌(이하 PP)을 생산하고 있다.

안진규 팀리더를 포함한 총 4명은 효율적으로 안배한 업무에 따라 성과 창출을 주도한다. 이 가운데 임팩트 코폴리머(Impact Copolymer) 중합을 담당하는 홍성길 사우는 손꼽히는 기술 역량으로 제품 개발 완수에 속도를 부여한다. 실험실 내 중합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특허와 논문, 최신 서적 등 탄탄한 이론 연구에도 헌신한다. 이규현 사우는 중합된 PP 파우더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을 중합 조건과 비교해 통계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연구노트를 도입해 발 빠르게 연구 정보를 회람하게 됐고 유사 실험 조



건에 따른 결과를 한층 정확하게 비교해 우리만의 연구 데이터 축적과 활용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 팀에 새롭게 합류한 정정표 사우는 PP 중합과 아울러 관련 화학물질들의 구조식을 연구하고, 각각의 반응 특성 속에서 인과를 규명하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곤 한다. 우리회사가 지난해부터 생산한 PP는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자동차의 범퍼를 비롯한 각종 내장재의 원료로 쓰이고, 에어컨이나 모니터 같은 수많은 가전제품의 단단한 외형도 마찬가지다. 우리 폴리머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 즉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성형 가공 업체들은 각 제품 성형에서 고려할 무수한 요건에 잘 부합하면서 탁월한 물성을 지닌 PP 제품을 요구한다. 특히 고분자 제품을 포함한 소재 산업에서 대개 ‘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구사하던 기술 개발 경향은 초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의 대응 경향이 뚜렷하다. 그 첨예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제품을 현실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고분자제품개발팀이 최근 집중하는



한 강성의 제품으로 고객에게 전달돼 최고 연비를 경신하는 자동차나 운반이 좀 더 용이한 가전제품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폴리머의 물성은 촉매와 공정에 크게 변한다. 이 가운데 고분자제품개발팀이 최근 집중하는 것 중 하나가 촉매다. 촉매 변경을 통한 제품 특성 향상 연구는 경제성 향상의 목적뿐 아니라 신제품 개발을 달성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각 촉매 업체들이 생산하는 여러 촉매들을 선택하고 생산 여건과 제품에 맞게 적용하는 일련의 작업을 엄밀하게 진행한다.

**기술의 정점은 안전
성과의 동력은 인내와 열정**

고분자제품개발팀은 기술과 안전 사이에서 가장 성공적인 균형점을 고민한다. 기술의 한계는 전인미답의 영역을 향해 끝없는 발걸음을 잇다 보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다루기 어려운 것이 안전의 한계다. 석유화학 제품은 거대한 설비가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생산 현장에서 탄생한다. 그에 선행하는 실험실의 연구란 현장보다 과격한 조건으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는 과정이다. 최적화한 제품 생산의 조건을 찾아 나가면서 동시에 안전의 한계 범위를 규명하는 과정에는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 자연히 고분자제품개발팀은 예민한 감각

“
우리의 열정(Passion)은
기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해안에서
비롯됩니다

”
안전규 팀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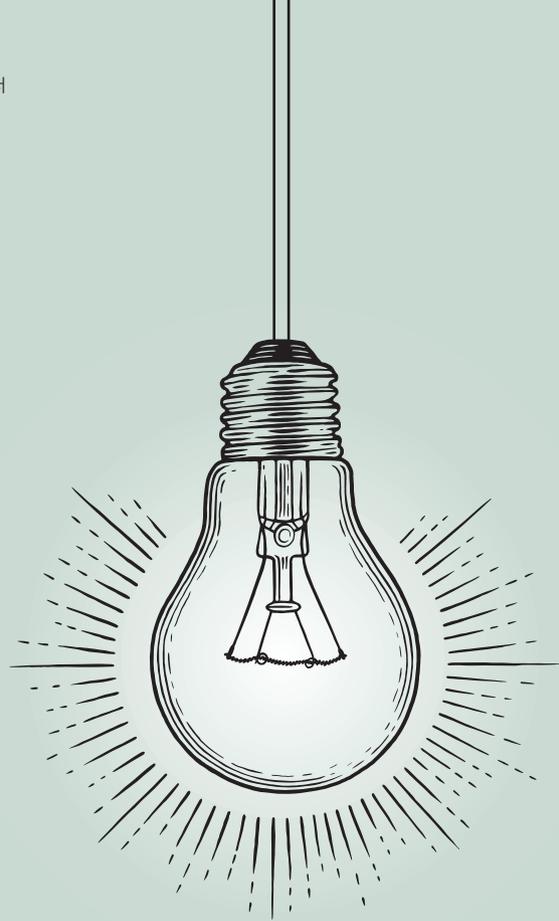
과 판단력, 대응력으로 다양한 한계 조건에서 언제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데에 각별히 노력한다.

고분자제품개발팀의 가동은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과 같다. PP 생산 이전에 팀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전까지 마곡 기술개발센터(S-OIL TS&D Center) 설립을 비롯해 각종 훈련, 검토 등으로 바쁜 시간을 거쳤다. 더욱이 기술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두려움을 넘어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마저 거울삼아 성공의 길을 찾아내는 긴 시간을 견뎌야 한다. 이에 고분자제품개발팀은 강한 자신감과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를 되새긴다. 열정의 핵심가치를 일순위로 꿈을 만한다. 이와 함께 타산지석으로 삼을 선도적인 특허들을 분류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찾는 해안도 필요하다. 학회, 세미나 등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도 남다른 식견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탄탄한 조력자를 발굴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



불 기 암 실 不欺暗室

핵심가치
[정도] 편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중국의 양(楊) 씨 집안에는 사지당(四知堂)이란 현판이 유독 흔하다. 이는 중국 후한(後漢) 시대 청렴한 관리였던 양진(楊震)의 고사와 관련이 깊다. 양진이 형주 자사(검찰관)로 부임했을 때 창읍의 현령(지방장관)이었던 왕밀(王密)이라는 자가 깊은 밤중에 금 열 근을 들고 찾아왔다. 예전에 양진이 왕밀의 재능을 높이 사 그를 추천해 준 데 대한 보답이었다. 양진은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다. 왕밀이 은근히 말했다. “지금은 한밤중이라 당신과 저 외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자 양진이 말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안다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는 규칙을 잘 지키거나 상대방을 칭찬하는 선한 행동을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그 반대의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들키지만 앎으면 상관 없다는 생각에서다. 누군가 지켜보면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보는 이가 없으면 본능대로 행동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시인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소망하며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했다’고 고백한다. 큰 중죄를 범하고도 발뺌하는 이가 있다면 누군가는 작은 실수에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윤동주 시인처럼 순결하고 예민한 양심을 지니지는 못할 지언정 자기 양심조차 속이는 행위는 구차하다.

어둠 속에서도 속이지 않는 진실함

유학의 종장인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선생은 무자기(毋自欺)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무(毋)는 금지를 뜻하며 자기(自欺)는 자신을 속인다는 뜻이니 무자기(毋自欺)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퇴계는 예순여덟에 종1품의 관직에 해당하는 우찬성이 됐지만 조정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한 벌뿐이었다. 남을 속여 재물을 축적하지 않았기에 평생을 검소하게 산 것이다. 조선시대 학자 박윤원(朴胤源)은 “군주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마음을 속이지 않고, 신(神)을 속이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속이지 않음으로 나의 참됨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직장으로 비유하면 상사를 속이지 않고 동료들을 속이지 않고 내 양심을 속이지 않으며 하늘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대학(大學)> ‘성의장(誠意章)’에서는 “이른바 그 뜻을 진실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니, 악을 미워하기를 악취를 미워하는 것같이 하며, 선을 좋아하기를 호색(好色)을 좋아하는 것같이 하라”고 했다. 속이지 않는 것은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진실함을 잃으면 자신을 거짓으로 꾸며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인다. <중용(中庸)>에서도 “감춘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은미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는 데에서 삼간다”고 강조한다. 장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이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문신 장유는 “어두운 방에 침묵의 공간이 있다. 사람들은 듣고 보지 못해도 신은 너와 함께 있다. 네 게으른 몸을 경계하고 나쁜 마음을 갖지 말라. 처음에 막지 못하면 하늘까지 넘친다. (중략) 저 어두운 곳을 나는 스승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불기암실(不欺暗室)이다. 어두운 곳에서도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어도 좋은 사람이다. 과정보다 속도와 결과를 중요시하는 시대다. 정도(正道)를 걸으면 느릿하고 답답하게 보이며 웬지 손해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요령을 피우거나 원래 그렇게 한다는 핑계로 원칙과 양심을 저버린다. 그러나 사람들을 속여도 하늘이 알며 자신의 마음이 안다. 정도(正道)의 과정 없이 진정한 성과를 이룰 수 없다.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진실한 행동은 결국 값진 신뢰의 결실을 맺는다. 🌱



글. 박수밀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의 말공부> <연암 박자원의 글 짓는 법>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 등 저서가 있다.

핵심가치 [정도]를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불기암실 어두운 곳에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



不欺暗室
不欺暗室
不欺暗室
不欺暗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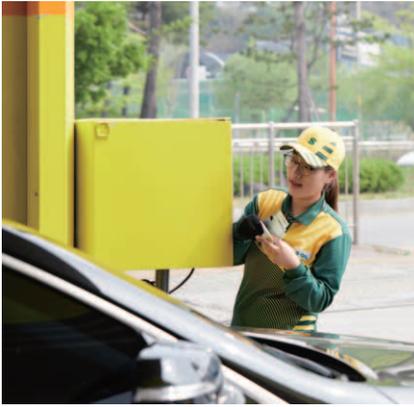


고객과 직원 너나없는 가족

스마트주유소

새로운 변화에는 위험요소가 따른다.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고정 고객 감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스마트주유소 박인곤 대표는 예측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변화를 택했다. 바뀐 환경을 기회로, 긍정적인 마음을 동력으로 도전을 거듭하며 나날이 성장 중이다.





스마트주유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245
031-668-7142



오른쪽부터
박인곤 대표, 아내 정순옥 씨,
동생 박은주 씨, 매부 정영일 씨



**스마트주유소
성공 전략 3**

1 역할 분배 '스피드' 작업

박인곤 대표는 주유소의 스피드는 생명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출·퇴근시간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큰 혼잡이 발생한다. 네 명이 차량 안내, 주유, 결제, 출차, 세차 등 각 영역별 업무를 철저히 분담해 자동화 못지않은 속도를 자랑한다.

2 아에이오우~스마일 스트레칭

긍정적인 마인드와 미소는 스마트주유소의 강점이다. 직원 모두가 얼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일 습관처럼 훈련을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부드러운 미소가 절로 얼굴에 번진다.

3 '스마트'한 대처 능력

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기 차량들 순서가 꼬이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위치를 체크한다.

척하면 척, 서비스 마인드도 찰떡호흡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하루 지내십시오.”
우렁찬 목소리에 미소를 머금은 인사가 경쾌하다. 앓을 틈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지친 기색 없이 환한 얼굴들이다.

“사실 새벽 5시부터 주유소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다보면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모든 고객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뚝뚝한 말투로 내뱉는 농담 한마디에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박 대표는 힘이 들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웃으며 일하는 운영 철학을 매일 실천한다.

“지칠수록 목소리도 크게 내고 웃으며 일하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직원들이 좀 지쳐있다 싶으면 일부러라도 농담을 많이 건네는 편이에요. 웃으면 좋잖아요.”

스마트주유소의 분위기가 유독 화기애애한 이유는 가족 운영체라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아내, 여동생 부부와 함께 운영하다보니 돈독함이나다르다.

“가족 운영의 강점은 굳은 믿음이죠. 든든한 마음도 크고요.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하구나’ 바로 알아차리는 찰떡호흡은 기본입니다.”
가족 사이의 따스함은 자연스럽게 고객에게도 전달된다. 우리 브랜드와 함께 친화력 넘치는 박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 덕분에 단골 고객 관리도 이상 무다.

사기 복돋는 긍정적 변화

스마트주유소는 올해 3월,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기존의 획일화된 분위기를 탈피하고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언젠가부터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력과 생기 넘치는 주유소는 고개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온전히 전달되거든요. 늘 반복되는 작업, 같은 공간, 서비스에서 오는 매너리즘은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유소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들에게 새로운 근무환경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고 고객들에게는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박인곤 대표의 예상은 적중했다. 스마트주유소는 우리회사 풀을 내걸고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로 고객유치에 나섰다. 직원들 사기 또한 향상됐다. 더불어 유외사업으로 세차 서비스를 강화해 5만 원 이상 주유 고객들에게 세차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마케팅도 계획 중이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고객의 요구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더라고요. 저 역시 그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늘 고민합니다. 아직 에스-오일 신입이라 우리회사 타 주유소 대표님들과 교류하며 한 수 배워야겠어요.”

박인곤 대표의 꿈은 사실 소박하다. 큰 기복 없이 평균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그의 소신대로라면 고객들은 스마트주유소를 찾는 신뢰를 보여줄 것이다. 🌟

어느새 훌쩍 자란

사랑

김계록 사우(품질관리팀)
가족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지 6년,
그 사이 둘은 넷이 됐다. 아장아장
걸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몸과 마음이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며 쏘살같은 시간을
실감한다는 김계록 사우 부부다.
눈 깜빡하면 지나갈 오늘을
기록하려 사진기 앞에 섰다.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

화사한 색상으로 옷을 맞춰 입은 김계록 사우 가족이 들어서자 스튜디오가 조명을 켜 듯 환해진다. 올해 7살과 4살이 된 서은이와 서윤이는 한창 호기심이 많은 나이답게 스튜디오 이곳저곳을 활보한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에 한참을 눈을 두리번거리던 아이들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놀이를 시작한다. 서로 립스틱을 발라 주는 흥내를 내며 종알종알 이야기꽃을 피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김계록 사우와 아내 박대한

씨 입가에는 어느덧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몰라요. 재빠르게 지나가버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의 아이들을 평생 간직하게 될 기쁨에 김계록 사우의 눈이 빛난다. 오늘 사보촬영은 아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이기에 특별한 사연도 이야기도 없다’는 생각에 출연을 망설였지만, 훗날 아이들과 함께 곱씹을 수 있는 추억이 될 것 같아

출연을 결심했다.

함께 놀이를 하며 긴장을 푼 가족이 이내 촬영 준비를 마쳤다. 마치 일상의 연속인 양 서운이와 서윤이는 사진작가의 주문에 맞춰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짙은 표정을 짓는다.

“서운이 둘 촬영 뒤 처음 찍은 가족사진이라 아이들이 잘 따라줄까 걱정했는데, 의젓하게 임해줘서 다행이네요.”

단상에 올라가 부부의 눈높이에 맞춰선 아이들이 “아빠, 아빠! 나 키가 이만큼이나 커졌어요.”라며 소리친다. 서운이의 애교에 함박웃음을 터트리는 모습마저 똑 닮은 이들 가족의 행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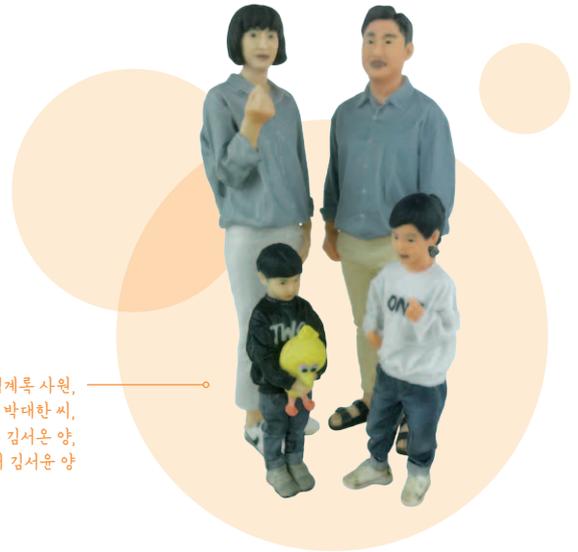
엄마 아빠의 전부

지금처럼

밝고 순수하게

자라주길 바라

김계록 사원,
아내 박대한 씨,
첫째 김서운 양,
둘째 김서윤 양



퍼즐처럼 서로의 부족함 채우는 사이

김계록 사우와 아내 박대한 씨는 2013년 1월 결혼에 골인했다. 달콤한 신혼을 즐길 생각으로 기대감에 차 있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아이가 찾아왔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과 동시에 부모가 될 준비를 시작했다.

“결혼한 뒤 바로 첫째와 둘째를 연이어 낳게 되면서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육아에 전념하게 됐어요. 자신의 커리어를 놓는 대신 아이들을 키우고, 저까지 챙기는 아내를 보면 참 미안하고 고마워요.”

수줍게 고백을 건네는 김계록 사우의 말에 아내의 눈이 동그래진다.

“남편이 경상도 남자라 무뚝뚝한 편인데, 사보를 핑계 삼아 표현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2010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다정

하고 싹삭한 아내와 달리 스스로를 ‘상남자’의 표본이라 칭하는 김계록 사우는 “서로 다른 부분에 매력을 느꼈다”고 전한다. 퍼즐처럼 서로 갖지 못한 부족함을 채우는 사이라고 생각한 두 사람은 평생 미래를 함께 그려가기로 약속했다.

아내는 “남편이 해준 깜짝 프러포즈는 평생 잊을 수 없다”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정동진 바다 앞에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저와 비슷한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남편이 직접 녹음한 음성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가 었그제 같은데 어느덧 두 딸의 부모가 됐네요.”

두 칸짜리 소파에 나란히 걸터앉아 옛 추억을 더듬는 부부는 한동안 잊고 있던 연애 시절의 설레던 감정이 되살아난 듯 지그시 눈을 맞춘다.

‘세젤레’ 세 모녀

부부는 사진촬영과 달리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피규어 촬영을 어린 서운이가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먼저 수월하게 촬영을 마친 세 가족은 막내 서윤이가 촬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김계록 사우는 서운이의 눈높이에 맞춰 촬영순서를 꼼꼼히 설명하고, 아내 박대한 씨는 준비한 뽀로로 동영상을 재생한다. 언니인 서운이는 서운이 옆에 서서 연신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한다. 가족의 노력에 보답하듯 작은 움직임도 없이 반듯한 자세를 유지한 서윤이는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을 받는다. 가족의 박수를 받은 서윤이는 아빠의 품으로 달려와 폭 안긴다.

김계록 사우는 요즘 두 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재미에 빠졌다. “첫째 아이 때는 여러모로 걱정과 서투름이 많았다면, 지금은 여유가 생겨서인지 그만큼 아이들이 주는 행복을 실감한다”고 전한다.

“처음부터 남편과 ‘아이들을 공부에 대한 압박 없이 키우자’고 말했어요. 큰 고민, 큰 탈 없이 밝고 순수하게 자라주면 좋겠어요.”

아내 박대한 씨의 말에 김계록 사우도 같은 생각이다. 차분하고 의젓한 서운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장난꾸러기 서윤이, 두 아이의 성향은 달라도 부부의 바람은 한 가지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다. 🌈



깊고 푸른

미지의 유영

프리다이빙

글. 정상완(동력7과)
사진. 디자인소호



무호흡의 수중 카타르시스

프리다이빙은 산소통 없이 오직 한 번의 호흡에 기대어 물속을 누비는 스포츠다. 무호흡 상태에서 가장 깊은 수심에 도달하거나 최대 수평 거리를 잠영하는 것으로 기록을 갱신해 나간다. 산소통을 쓰지 않지만 최소한의 장비는 있다. 차가운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다이빙 전용 슈트를 입고 스노클과 마스크도 준비한다. 여기에 물고기 꼬리지느러미 역할을 하는 핀을 장착하면 더 깊이, 더 오래 유영할 수 있다.

어릴 적부터 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뛰어들 만큼 수영이 좋았다. 성인이 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인증하는 수상안전 인명구조요원 과정을 통해 처음 잠영을 접했다. 수영장과는 또 다른 다이빙장에서 깊은 물을 향해 맨몸으로 움직이는 프리다이버의 모습에 '멋지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서른 살 되기 전 '버킷리스트'에 프리다이빙을 적어 넣고, 곧 입문했다. 그것이 올 1월이다.

프리다이빙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그 매력을 체감했다. 처음 교육에 참

가한 날, 물속에서 4분 동안 무호흡 기록을 썼다. 이후 훈련을 거듭해 잠영 75m를 찍었을 때 쾌감이 잊히지 않는다. 더욱이 깨끗한 물속에 잠겨 있을 때면 고요한 평화가 깃든다. 수중에서 수면을 올려다보노라면 끝 모를 안온함이 밀려온다. 손끝으로 모든 긴장이 빠져나가는 기분이다.

고요하지만 박진감 넘치는 레포트

대체로 일주일에 두 번 프리다이빙을 연마한다. 울산에 결성된 '블루독프리다이빙' 팀 소속으로서 문수실내수영장(울산시 남구 문수로) 다이빙풀에서 진행되는 정기 훈련에 참가한다. 훈련을 고대하는 마음 덕분에 힘든 일상도 버겁지 않다. 순수하게 단련한 신체로 소박한 기록을 써 나가는 성취와 보람이 고스란히 삶의 활력으로 치환된다.

기운이 완전히 풀리는 5월에는 가평으로 간다. 깊은 다이빙풀이 있는 'K26'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이곳의 '실전잠수풀'은 아시아 최대 수심인 26m 깊이를 자랑한다. 국외로 나가 레포트로 즐기는 편 다이빙에 참가하

Free diving

거나 다이빙 수심 기록을 배가하기 위한 연습에 안성맞춤인 훈련장이다. 평소 폐 부위의 스트레칭을 습관화해 폐활량을 늘려 나가는 훈련도 매우 중요하다.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결코 무리하지 않는다. 실전 원칙부터 보수적이다. 무조건 일대일, 버디 시스템을 따른다. 한 명이 입수하면 다른 한 명은 잠시 지켜보다가 먼저 입수한 다이버가 상승하기 전 같은 수심으로 내려가서 함께 올라온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의식을 잃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두 다이버가 항상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물 밖으로 향한다.

출수한 다이버들은 반드시 회복호흡(recovery breathing)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I'm Okay!' 신호를 보내면 비로소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출수 중 다이버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조의 최우선 책임은 버디에게 있다. 다이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뒤 의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완수한다. 이런 연유로 다이버는 스스로 안전 규칙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 구조 상황에 대비해 단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혼자만의 유영인 동시에 두 생명을 마땅히 책임질 수 있는 중목이기에 온전한 체력과 정신력은 필수다. 🌻



다이버는
스스로 안전 규칙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

구조 상황에 대비해
단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프리다이빙 정보상자

TRAINING

서울 아피아(AFIA)프리다이빙교육센터
국내 최초 프리다이빙 강사가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다이빙교육센터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프리다이빙 강습이 진행돼 직장인들 참여도가 높다.
주소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91가길 57

울산 문수실내수영장
시립스포츠타일 수영장 내 스킨쿠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 원하는 프로그램 강습은 물론 장비대여(유료)도 가능하다.
주소 울산시 남구 문수로 44

울산프리다이빙 동호회 '라온'
울산 외에도 부산, 창원 등 경남지역을 아우르는 프리다이빙 동호회다. 다이빙 정보, 지역별 강습 소식, 대회 정보 등을 두루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https://blog.naver.com/korants77>



모두가 챔피언

감동의 마라톤 참가기

글. 김은희(세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간사)



2019년을 시작하며 세운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마라톤대회 참가다. 올해 3월 인생 첫 마라톤에 출전한 데 이어, 4월 20일 잊을 수 없는 인생 두 번째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다. 에스-오일이 후원하는 감동의 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대회 당일 여의나루역에 도착해 행사장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자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나온 시각장애인, 보호자로 보이는 선생님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있는 지적장애인 등 출전 선수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몸을 풀고 있었다.

잠시 뒤 안내와 함께 출발 대기선에 모든 선수들이 모였다. 긴장된 표정 가운데서도 승부욕을 내비치듯 눈빛이 살아있었다. '5, 4, 3, 2, 1!' 손가락을 접으며 카운트다운을 한 선수들은 출발신호와 동시에 특별한 달리기를 시작했다. 연일 지속된 미세먼지가 이날만큼은 보통으로 나타나 모처럼 숨을 크게 쉬며 마음껏 달렸다.

200m 정도 뛰었을 즈음, 코골음으로 라일락 향기가 스르륵 스며들었다. 주변에 함께 달리던 사람들 모두 탄성을 질렀다. 조금 더 달리니 그림처럼 예쁜 툄립이 선수들을 맞이했다. 오른쪽으로는 한강이, 왼쪽으로는 화사한 꽃들이, 위로는 해를 살짝 가린 뭉게구름이 이날 대회를 힘차게 응원하는 듯했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은 발걸음을 경쾌하게 이끌었다.

하지만 봄 정취에 취해 달리는 것도 잠시, 우리 팀은 각자 보폭이 달라 흩어졌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애타게 반환점을 향해 달리던 그때 옆으로 한참 어려보이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팀을 이뤄 달리며 지나갔다. '잘 하고 있어요'라는 그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다시 없던 힘까지 끌어 모았다. 한참 앞서가던 우리 팀원들 또한 보폭을 맞춰 주며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약한 사람은 혼자 살면 살 수 없지만, 약한 사람끼리 살면 서로 도우며 같이 살 수 있다'는 어느 영화 속 대사가 떠오른다. 두 번의 마라톤 모두 함께 뛰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절대 완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시선과 편견으로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봤다. 앞으로도 감동의 마라톤과 같은 의미 있는 행사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달리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

도일리와 함께 감성 나들이

<아름다운눈빛미술제> 관람기

글. 허재영(대외업무팀)



4월 3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4전시장에서 열린 <아름다운눈빛미술제>에 다녀왔다. 우리회사가 199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후원해온 행사다. 저녁 6시 30분부터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 이영백 부사장은 기념사와 테이프 커팅으로 스물네 돌 맞은 미술제를 축하했다. 우리 직원들도 여럿 동행했다. 뜻깊은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작품을 두루 살펴보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4월 8일까지 관람객을 끌어 모은 전시에는 540여 점 작품이 걸렸다. 아마추어 작가들의 출품작을 비롯해 미술제에 앞서 진행된 '아름다운 울산 12경' 스케치공모 특별전과 붓글씨 한 마당 축제 수상작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든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폭넓은 문호 덕분에 전시작도 다양하다.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데생, 도예, 서각, 문인화, 민화, 캘리그래피 등 여러 작품이 망라된 미술제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작품 중에는 도일리가 접목된 설치미술도 있어 가족 단위로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술 전시장까지 진출한 도일리를 보니 설핏 웃음이 났다. 우리회사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어디에나 어울리니 뿌듯하다.

회사의 대외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기를 들고 현장에 있노라면 결코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사진 촬영은 찰나에 이뤄지고, 순간의 장면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미술제 현장을 찾은 것도 수년째지만 작품을 들여다볼 짬은 없었다. 올해는 예정한 촬영을 마친 뒤 잠깐이나마 관람객 입장이 돼서 전시장을 둘러봤다. 그 공간에는 작품뿐 아니라 긴 시간 미술제를 후원하면서 훌쩍 성장한 우리회사의 존재감도 서려 있었다. 이날 촬영이 더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



꽃길 따라 추억 활짝

산악회 정기산행기

글. 피준호(탈항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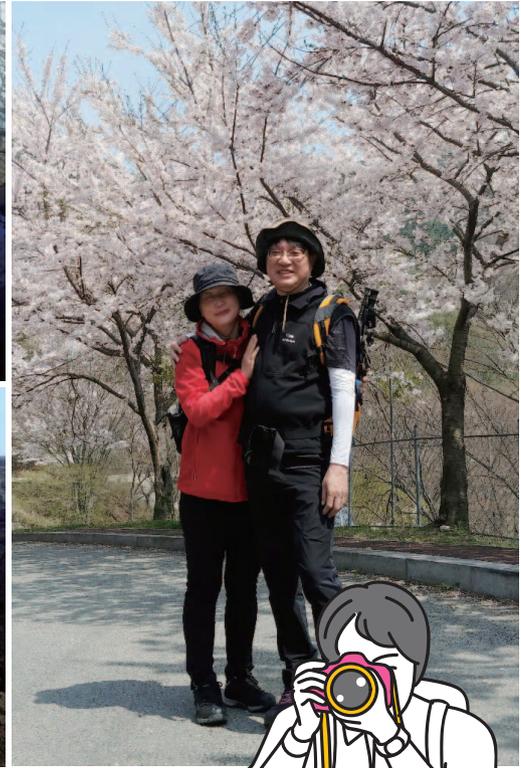
새 마음 첫 산행

입사 초기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뒤 계기과로 발령받자마자 가입한 동호회가 산악회다. 마라톤 동호회도 함께 가입했지만 한두 해 나이가 늘면서 점점 산악회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가입 당시만 해도 모임이 활발했는데 언젠가부터 골프 등 다른 분야로 사우들의 관심이 분산되면서 산악 모임 빈도가 줄어든 듯 보였다. 이에 올해부터 우리 산악회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다. 김상배 신임회장(계전기술팀리더)을 필두로 새로운 회장단을 꾸렸고 분기에 1회씩 산행을 계획했다. 그렇게 지난 4월 13일, 경남 합천 황매산으로 첫 산행에 나섰다.

출발 당일 정기보수(T&I) 관계로 갑작스럽게 불참하게 된 회원이 있는가 하면 이날을 위해 일부러 휴가를 낸 이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공업탑을 출발해 2시간 30분을 달려 경남 합천에 도착했다. 최종 목적지는 기암절벽이 아름답게 형성돼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황매산이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풍광이 활짝 핀 매화꽃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5월이면 선홍색의 철쭉꽃이 수십만 평 고원을 물들인다.

우리는 당초 계획한 산행코스에서 벗어나 닭벼슬바위를 거쳐 철쭉군락지로 이동했다. 처음부터 문수산 깔딱고개를 방불케 하는 코스가 있어 회원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선두주자부터 후미까지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도중에 쉬어 가는 회원들도 하나둘 생겼다. 10여분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 2km를 더 오르고 나서야 철쭉 군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아직 4월 중순이라 꽃이 조금밖에 피지 않았지만 탁 트인 고원 절경에 마음이 탁 트였다.





자연 속 에너지 충전

개별 사진촬영 뒤 우리는 철쭉군락지 끝지점에서 각자 체력에 맞게 A코스, B코스로 나눠 산행했다. A코스는 벚틀봉을 지나 황매산정상에 오른 뒤 전망대를 거쳐 오토캠핑주차장으로 향하는 루트고, B코스는 이보다 짧다. 대신 B코스 회원들은 만개한 벚꽃길을 산책하며 주차장 인근 황룡사 둘러봤다.

개인적으로 산행이 좋아 A코스에 합류했는데 길고 긴 계단을 올라 벚틀봉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이 고되기는 했지만 충분히 보람 있었다. 2시간 30여분 산행 끝에 황매산 정상에 올랐고 서로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나누며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정상에서 전망대로 향하는 길에 마주한 장대한 합천댐 광경에 우리는 탄성을 내질렀다. 정상에서 바라본 합천댐은 마치 남해바다와 같았다. 10.2km라는 짧지 않은 산행이었지만 온몸으로 전해진 힘찬 기운 덕에 오히려 재충전한 기분이었다.

하산한 뒤 인근 식당으로 향해 준비된 오리요리와 해물파전을 즐기며 서로의 산행 후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회원들은 두 번째 산행은 1박2일로 가자고 적극 제안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해 첫 산행은 참가한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됨은 물론, 산악회 활성화에 하나의 원동력이 된 듯하다. 다음 2분기 정기 산행은 더욱 멋진 여행이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계획이다. 산악회의 힘찬 에너지가 개인 일상과 업무 전반에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할 것이라 자신하며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우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신이 만든 하늘 정원

히말라야 여행기

글. 성준희(해상출하과)



도전하는 세계인의 놀이터

히말라야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신 같은 존재의 산이었다. 히말라야 트레킹 역시 그저 꿈으로만 그칠 줄 알았다. 하지만 올해 3월 1일, 나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 중간에 위치한 네팔에 두 발을 내디뎠고 열흘간 꿈의 여정을 이어갔다.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개 봉우리 중 8곳이 네팔에 위치해 있다. 우리의 목적인 안나푸르나 지역은 가장 아름답고 인기 있는 트레킹 구간으로 꼽힌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고삿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어 히말라야 트레킹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렘과 두려움이 큰 만큼 정보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행의 즐거움은 떠나기 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듯하다. 항공권 예약부터 가이드 섭외까지 마치고 나니 한결 마음이 차분해졌다.

트레킹의 관건인 날씨는 하늘에 맡기고 7시간의 비행 끝에 네팔 트리반푸 공항에 도착했다. 첫 날은 네팔 중심가인 타멜에서 여장을 풀었다. 산행도 좋지만 잠시라도 현지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타멜 거리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열악했지만 여행객들과 네팔 젊은이들이 뒤섞인 모습만은 활기가 넘쳤다. 한편 트레킹의 시작은 제2의 수도인 포카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18도 이내라 산행 전 하루쯤 쉬었다 가기 좋은 지역이다. 한낮에 페아호수를 거닐며 장작불에 구워낸 옥수수를 먹고 평화로운 산책을 즐긴다면 밤에는 모닥불 옆에서 별다 보고 네팔 민요를 들으며 맥주 한 캔 정도 들이키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달을 듯 닿지 않은 안나푸르나로의 여정

네팔 셋째 날, 포카라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렸다. 이곳에 비가 온다면 고지대에는 분명 눈이 많이 쌓였을 것이다. 트레킹 노선을 변경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다행히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청명한 하늘이 보였다. 서둘러 일행과 차를 타고 울퉁불퉁 오프로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산인지 발인지 분간할 수 없이 다닥다닥 형성된 다랑이 밭이 밭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현지인의 고단한 노동의 현장이지만 여행자들에게겐 한 폭의 그림으로 비춰진다. 3시간 넘게 달린 끝에 드디어 자동차



가 올라올 수 있는 마지막 정착지인 올레리에 도착했다. 하루 시간을 벌기위해 차로 이동해 고도를 1천300m 정도 올린 덕에 쉬엄쉬엄 고레파니를 향해 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높아진 고도 때문인지 심한 경사 때문인지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고라파니 롯지에서 다음 목적지인 푼힐 전망대까지는 1시간 30분 소요된다. 손발 끝이 간질간질 저려오고 기운이 빠지는 고산병 증상도 나타났다.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모두가 앞을 보고 전진하고 있어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새 동이 뜨고 다 올라기리의 봉우리에 햇살이 비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 황홀함이 밀려왔다. 산봉우리가 줄줄이 늘어서 환영하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다. 그 순간 힘들었던 여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웅장함과 신성한 감동이 메아리로 요동쳤다.

네팔 넷째 날, 우리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이하 abc)로 들어가는 관문인 촌롱을 거쳐 산 아래 다랑이 밭이 끝없이 펼쳐진 킴롱을 경유해 간드룩으로 향했다. 간드룩 마을은 제법 크다. 절이 있어 저녁과 아침에 잔잔한 불경을 1시간가량 틀어준다.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마음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또한 네팔에서 놀란 점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생활 영어를 잘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네팔의 교육 정책 덕분으로, 최소한 모국어 포함 3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친절한 현지인들과 교류도 히말라야 트레킹의 매력이다.

네팔에서의 마지막 롯지는 오스트리안 캠프

프다. 밤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일출을 볼 수 있을까 염려하며 잠을 청했다. 새벽녘 텅커벨이 요술봉을 휘두른 것처럼 커튼사이로 오리온별자리가 또렷이 들어왔다. <라이언 킹> 한 장면처럼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드디어 네팔 여행 마지막 날이다. 최고의 하이лай트는 포카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갈 때 펼쳐진 산봉우리들의 향연이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갈 때는 오른쪽 좌석, 포카라에서 카트만두로 갈 때는 왼쪽 자석에 앉아야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비행기 이륙 5분쯤 뒤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장관에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다. 모두들 카메라를 유리창에 들이대며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구름보다 더 높이 산봉우리들이 삐죽 삐죽 솟은 모습은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깨

닫게 했다. 카트만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히말라야 산봉우리들이 구름 위에서 유유자적 노니는 듯했다. 세계의 지붕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실감했다.

국제선 항공기조차 8천m를 넘는 산지에서는 항행이 위험해 히말라야 산맥으로는 잘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가는 항공기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대신 태국이나 방글라데시 쪽으로 빙 둘러서 간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덕 앞에 최종 목적지인 abc까지 오르지 못했지만 아쉬움 이상으로 행복한 트레킹이었다. 무엇보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나라, 네팔의 자연과 사람들을 만난 그 시간은 생애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새겨졌다. 🌿



바다 건너 인생 질주

일본 다이센 자전거 라이딩 후기

글: 박건구(총무팀)



선상에서 하룻밤

3월 28일부터 3박4일 동안 자전거 사모임인 사관학교 동기생 13명과 환갑을 기념해 일본 다이센(大山) 라이딩에 나섰다. 작년 대마도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원정 라이딩이다. 일본 돗토리현에 있는 다이센은 평원에 우뚝 솟아 있는 화산 모습이 도쿄 후지산과 닮았다 하여 돗토리의 후지산이라 불린다. 일본에서 세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해발 1천729m로 후지산, 아리타케와 함께 일본 3대 명산으로 꼽힌다. 산과 바다의 풍광을 두루 갖춰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다이센 라이딩을 위해서는 동해항에서 일본 돗토리현의 사카미나토항까지 매주 1

회 운항하는 크루즈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해야 한다. 항공편에 비한다면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선상에서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이유는 충분하다. 여기에 출렁이는 바다가 보이는 목욕탕도 구비돼 여행의 피로까지 풀 수 있다. 그 외에 자전거용 거치대는 물론 단체 여행객을 위한 쾌적한 객실이 마련돼 있어 우리에게 더없이 안성맞춤이다.

서울, 대전, 부산, 진해 등 전국에서 모인 동기생들과 동해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만나 엄격한 출국 검색을 통과한 뒤 배에 올랐다. 우리의 라이딩은 이미 바다에서부터 시작됐다.

인내로 견딘 과정, 달콤한 보상

15시간의 항해 끝에 오전 9시쯤 사카이미나토항에 도착했다. 선상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는 곧바로 미즈키 시게루 로드를 향해 페달을 밟았다. 국내에서 오토 만화로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원로 작가의 이름을 딴 곳으로 오토거리라 불린다. 사카이미나토 지역 출신인 미즈키 시게루가 고향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신의 만화 캐릭터를 지역 상권에 무상으로 기증하면서 조성된 거리이기도 하다. 800m가량의 길 양쪽으로 140여 개의 작은 오토 캐릭터 조형물과 기념품 가게가 들어서 있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토거리를 지나 요나고까지 해안가를 따라 두 시간 정도 달려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여장을 내려놓고 최종 목적지인 다이센을 향해 내달렸다. 산 입구에 도착하니 완만한 오르막 위로 눈 덮인 봉우리가 눈앞에 펼쳐졌다. 다이센을 중심으로 많은 도로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다양한 풍경을 보기 위해 경사가 심한 코스를 선택했다. 오르는 길은 해발 800m까지 20km 정도의 오르막을 계



속 달려야 했다. 완만하게 시작된 오르막은 경사가 점점 심해져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게 했다. 페달을 밟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도 넘게 들었지만 동기들과 서로 힘을 주고받은 덕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목표 지점인 대산사(大山寺)까지 오를 수 있었다. 대산사를 둘러보고 내려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20km 이상의 내리막 길을 시원하게 질주하며 짜릿한 라이딩을 즐겼다. 곧게 뻗은 나무 사이로 잘 포장된 도로를 질주하는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몇 시간을 땀 흘리며 힘들게 올라간 길을 십여 분만에 내려오려니 너무 아쉬웠는지 동기 중 한 명이 “천천히 아껴서 내려가자”고 제안했고 이 말은 곧 우리 사이에 명언으로 남았다.

둘째 날은 야스기와 마츠에성을 거쳐 유시엔 정원으로 향했다. 형형색색 다양한 품종의 모란꽃으로 유명하다. 연중 섭씨 17도를 유지해 사계절 모란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도 있다. 유시엔 정원 관람을 끝으로 라이딩 일정을 마친 뒤 한 시간을 달려 다시 사카이미나토항에 도착했다. 항구를 나올 때 잠잠하던 바다가 연안을 벗어나니 파도가 거세지면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결국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동해항에 입항한 우리는 지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급경사 오르막 뒤 펼쳐지는 내리막길이나, 높은 파도가 지난 뒤 잔잔해진 항구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인생의 굴곡과 닮은 듯해 깊은 여운을 남겼다. 🌻



초원 위 별 헤는 밤

몽골 유목체험

글·사진. 노시훈(여행작가)

자연이 곧 사람이 되고 사람은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곳이 있다.
낮에는 드넓은 초원과 사막의 장대한 풍경이, 밤에는 무수히 쏟아지는
별과 은하수가 눈앞에 펼쳐지는 몽골이다. 조금 더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부분만을 최소한으로 채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몽골인의 순수함이
잔잔한 감동으로 메아리친다.



1월 1박3일 홍콩 딤성수업	2월 2박3일 일본 미술렙 탐방	3월 3박4일 베트남 크루즈 여행	4월 4박5일 태국 요리수업	5월 5박6일 몽골 유목체험	6월 6박8일 스페인 축구관람	7월 7박8일 핀란드 오로라 탐방	8월 8박9일 터키 역사기행	9월 9박11일 쿠바 올드카 여행	10월 10박12일 볼리비아 바리스타 수업	11월 11박13일 오스트리아 클래식 공연	12월 12박13일 인도 명상기행
--------------------------	----------------------------	-----------------------------	--------------------------	--------------------------	---------------------------	-----------------------------	--------------------------	-----------------------------	----------------------------------	----------------------------------	-----------------------------



5박6일

몽골 유목체험 추천 일정

DAY 1

오후 항공편 이용 → 징기스칸공항 도착 →
호텔 투숙 뒤 휴식

DAY 2

조식 뒤 호텔 출발 →
이태준기념공원/자이승전망대 관람 →
테를지국립공원 → 게르 캠프 숙박

DAY 3

말타기 체험 → 징기스칸 전망대 관람 →
허르헝(양고기찜) 석식 → 게르 숙박

DAY 4

아리아발 사원 방문 → 테를지 산책 →
게르 숙박

Day 5

툴강 산책 → 울란바토르 도착 →
캐시미어 쇼핑 또는 겨울궁전 관람 →
전통 공연(투메이흐) 관람 → 호텔 숙박

Day 6

호텔 체크아웃 → 징기스칸공항 이동 →
아침 비행기로 인천 도착(13시)



TRAVEL INFORMATION

비행시간	약 3시간 40분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림
화폐	MNT(투그릭) *1천 원=약 2,300투그릭
교통수단	승합차, 택시, 버스

여행 정보 추천 사이트

- ▶ 주몽골 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mn-ko/index.do>
- ▶ 몽골여행 <http://cafe.daum.net/gomongol>
- ▶ 몽골가는길 <http://cafe.daum.net/gomongo>



1

추천 Point

날것의 목직 한 위로

몽골 5박6일은 사실상 4일 일정이다. 한정된 항공 일정 탓에 현지에는 저녁에 도착하고 돌아올 때는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5박6일 유목체험은 극과 극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도시 근교인 테를지국립공원(이하 테를지)에서 준비된 유목을 경험하거나, 고된 여정이지만 고비의 황무지와 사막에서 날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가족 단위 여행을 고려한다면 전자의 방법을 추천한다.

푸르디푸른 하늘,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드넓은 초원, 점점이 박힌 초원의 집 게르, 초원을 누비는 수백 마리의 가축과 말 탄 양치기까지 몽골에 대한 로망을 경험하고 싶다면 테를지에서도 얼마든지 이를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훗날 본격적인 유목 체험을 위한 예비 답사지 정도로 테를지를 선택했다가 이곳이 너무 좋아 아예 유목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관광 Point

자연과 함께하는 종합문화예술체험

▶ **테를지국립공원** 남한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드넓은 몽골은 사막과 초원, 삼림지대가 혼재한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동북쪽 근교에 위치한 테를지국립공원은 건조한 초원에 속하며, 사막으로 연상되는 몽골에 대한 선입견과 달리 이곳의 주조색은 초록색이다. 캠프식으로 구성된 게르촌, 말타기를 배우는 승마체험장, 전통 춤과 음악을 감상하는 공연장, 전통 양고기찜(허르헝), 방목하는 가축, 화강암 기암괴석, 맑은 강과 온천까지 몽골 여행자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준비돼 있어 짧은 시간 알차고 실속 있게 체험할 수 있다.

▶ **투멘이흐** 사람은 물론 낙타의 심금까지 울린다는 전통 악기 '마두금' 연주와 육성으로 자연을 흥내 낸 노래 '흐미'를 비롯해 몽골 전통의 노래와 춤을 1시간 만에 완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이다. 무대가 시내가 아닌 별이 쏟아지는 초원이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공연 수준이 아쉬움을 덮고도 남는다.

▶ **아리아발 사원** 테를지 북쪽 산 속에 위치한 이곳은 러시아의 불교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원 중 하나다. 영롱한 오색의 사원과 푸르고 청정한 하늘, 숲길의 초록빛이 어우러져 트레킹 명소로도 꼽힌다.



2



3

체험 Point

게르(몽골텐트)는 이동가옥이지만 임시가옥은 아니다. 당당한 유목민주택으로서 영하 40도는 물론 영상 40도에도 끄떡없이 거주자를 보호한다. 초원의 포인트처럼 흰색으로 점점이 박힌 게르촌의 모습이 한낮의 별자리라면, 게르 앞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 올려다보는 하얀 별 무더기는 반대로 밤의 게르다. 다만 눈으로 보는 장관을 사진으로 담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다.

승마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말은 예민한 동물이라 반드시 오른쪽으로 타야하며 말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대화를 하지 말라는 주의까지 듣게 된다. 처음에는 바짝 긴장하지만 1시간쯤 타다 보면 고삐를 직접 잡고 너른 초원을 달려 보고픈 충동이 생긴다. 🌻



4



5

• *Travel tip*

몽골 여행 전 알아두세요!

❶ 비자발급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보니 의외로 몽골 비자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 대행사를 통하거나 주한 몽골대사관 비자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❷ 여행 적정 시기는 여름

몽골의 여름(7~8월) 평균 기온은 최저 섭씨 7~10도, 최고 섭씨 19~22도로 낮에는 선선하지만 저녁에는 쌀쌀하다. 반면 12월~2월 몽골의 겨울은 영하 25도~영하 10도로 매우 추운 날씨가. 혹한기 체험을 즐기지 않는다면 여름이 여행 적기다. 7월에는 몽골 대표 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려 이색 체험에 제격이다. 한편 여름철 쾌적한 기후가 반갑더라도 피부가 건조하다면 반드시 보습제를 휴대해야 한다.

❸ 음식

개인차가 크지만 대체로 몽골음식이 입에 맞다는 한국인은 드물다. 빨간 음식이라고 부르는 육류와 하얀 음식이라고 부르는 유제품이 주류를 이루는데 양고기 특유의 향이 다소 거부할 수 있다. 비상식량으로 챙겨온 고추장이 좋은 보완재가 될 수 있다. 우유에 찻잎을 우려낸 수테차는 몽골인들이 손님에게 맨 처음 내놓는 웰컴 티(Welcome Tea)이므로 무조건 마시는 것이 예의다.

- 1-6 고비사막 모래언덕을 힘들게 올라 바라보는 노을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 2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징기스칸 전망대 조형물이다. 몸통 내부 계단으로 오를 수 있으며 말머리 부근에 전망대가 있다
- 3 몽골 투어에 최적화된 승합차 푸르공이다. 푸른 색의 몽골 하늘을 닮은 이름이 재밌다
- 4 말을 처음 타는 관광객들은 몽골인 마부 손에 이끌려가게 되지만 익숙해진 뒤 고삐를 넘겨받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상이다
- 5 몽골 유목민에게 전통과 풍습은 과거가 아닌 오늘의 삶이다

6







하늘 닿는 소나무 끝

평안과 구복의 기도

속초 도문동 상도문 솔숲 &
양양 조산리 조산송림

글·사진. 전부순

지방에는 마을마다 버들나무, 팽나무, 소나무처럼
나이 많은 나무들이 군락을 이룬 숲이 있다.
풍수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민간신앙이
행해지는 장소로서 마을공동체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소통과 화합의
생활공간이다.



TRAVEL INFORMATION

주소

강원도 속초시 상도문2길



마을 안녕과 풍요 기원 속초 상도문 솔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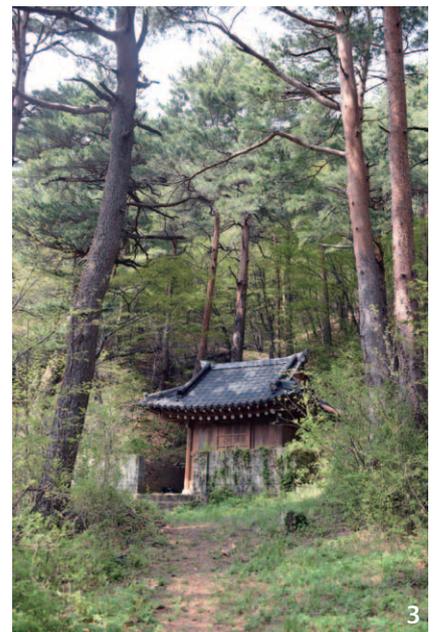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은 골목골목 이어진 돌담은 있으나 대문이 없는 전통 한옥으로 조성돼 정겨움을 더한다. 인심 후한 이 마을에 설악산 자락에서 흘러온 쌍천을 따라 길게 조성된 7천8백여 평의 솔숲은 가히 장관이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마을 형세가 행주형(물 위에 뜬 배 형상)이고 마을 뒤편이 배의 돛대에 해당한다 하여 돛대골이라 불렀다. 풍수란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지리관으로 살기 좋은 곳을 만들거나 안락한 경관을 형성하는 수단이라 마을숲을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더욱이 상도문 솔숲은 여름철 쌍천 범람으로 야기되는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제방숲이자 설악산에서 넘어오는 서풍을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한다.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는 아름다운 솔숲에는 매곡처사 오윤환(1872~1946)이 건립한 육각정자, 흔히 '육묘장'이라 부르는 학무정이 있는데,

방향에 따라 각각 이름이 다르다. 남쪽 '학무정(鶴舞亭)', 북쪽 '영모제(永慕齋)', 북동쪽 '인지당(仁智堂)', 남서쪽 '경의제(敬義齋)'라 쓰인 현판 때문이다. 한학자이자 항일운동가였던 오윤환은 속초팔경 중 하나인 학무정에서 여러 선비들과 함께 글을 읊고 시를 지었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도랑으로 삼았다. 이런 연유로 상도문 솔숲은 학무정숲으로도 불린다. 학무정 아래는 '망곡(望哭)터'였다. 조선 24대 왕 헌종이 승하하자 이곳에 살던 강릉박씨 평해공파 박지의가 여기에 단을 세우고 3년 동안 마의를 걸친 채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신라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설악산 쪽으로 가던 중 이곳에 이르자 맑고 우아한 소리가 숲에서 울려 나왔다. 두 대사는 길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 무상무야를 깨달았다. 이때부터 '도가 통하는 문이 열린 곳'이라 하여 도문이 됐고 마을 이름 도문동(道問洞)이 생겨났다. 상도문 솔숲 북쪽 끝자락, 설악산으로 향하는 도로 옆 언덕 위에 마을에서 제를 모시는 서낭

당이 자리한다. 보통 마을을 대표하는 남성 7~8명이 서낭제에 참여해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농사의 고달픔을 달래며 농요의 깊은 멋과 맛을 발산하는 '속초 도문농요' 본고장도 이곳이다.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 제44회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2007년 2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된 도문농요는 '소모는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벼베는 소리', '벼단세우는 소리', '마댕이 소리(도리깨질 소리)', '벼가리 지우는 소리' 등 농사 전 과정을 소리로 표현한다. 농요체험은 단시간에 옛 소리를 배우고 따라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시연으로 이뤄지는데, 마을에서는 '대동 메놀이'라 부른다.

또한 2007년 농촌진흥청 전통테마마을로 선정돼 옥수수·토마토 따기, 감자캐기 같은 농산





물 수확은 물론, 바구니와 복조리, 짚신 등을 만드느라 짚풀공예체험과 떡메치기, 산죽공예, 돌담체험, 목공예체험도 인기 있다.

생명 담은 신성한 숲 양양 조산송림

강원도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양양읍을 지나 북으로 5분여 오르면 낙산해수욕장이다. 이곳에 수백 년 된 소나무들로 둘러싸여 아늑한 느낌을 주는 조산리 마을이 있다. 지을 조(造), 뫼 산(山) 자를 쓰는 마을 이름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400년 전 이곳은 전부 습지였으나 사천리에 서 흙이 흘러와 바다를 메우면서 육지가 됐다. 어느 날 동네 노인들이 모여 있는데 한 노승이 지나가며 “마을이 살기는 좋으나 동쪽에 산이 없어 지금껏 영웅인걸이 나오지 않았으니 여기에 산을 하나 만들면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재

물도 많이 모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수 년 동안 산을 쌓았는데 조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봉우리는 그 때 만든 산의 흔적이다. 이곳은 ‘도평(島坪)’으로도 불린다. 1667년 산이 무너져 섬이 됐다가 1867년 큰 홍수로 매몰된 뒤 다시 육지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탄섬’, ‘속탄섬’, ‘원두섬’ 같은 이칭이 전해진다.

양양과 강릉은 사람이 살기 어려울 만큼 바람이 무척 셧다. ‘양강지풍’은 이를 두고 한 말로서 옛 사람들은 대대로 해변에 소나무를 심고 가꿔왔다. 그 결과 해안가에 조성된 3만6천여 평의 송림은 흥고가 1m 가까운 장엄한 노송으로 자랐다. 동해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모래, 염분으로부터 마을과 경작지를 보호하는 방풍·방재림 역할은 물론 연중 피톤치드를 내뿜는 휴양 숲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조산송림은 마을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해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곳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주둔하면서 해송을 절단하려 하자

부녀자들이 해송을 꺼안고 거세게 반대해 이내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주민들은 송림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불사했다.

한편 마을 해안선에 자리한 낙산해수욕장에서 남쪽을 향해 1km쯤 걸어가면 숲속 끄트머리에 동해신에게 풍농풍어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제를 모시는 동해묘(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가 있다. 동해신묘(강원도 양양군)는 신라 때부터 동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낸 제단으로, 서해의 서해신사(황해도 풍천), 남해의 남해신사(전라남도 영암)와 함께 주요한 국가 제의 장소로 역할했다. 매년 음력 2월과 8월이면 왕이 친히 향과 축을 하사해 제사를 지냈다. 현재는 새해 첫날 오전 6시 해맞이 행사 일환으로 동해신묘제례를 봉행하고, 해수욕장 개장시기인 7월 10일을 전후해 오전 10시쯤 해변용왕제를 지낸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예부터 산천과 바다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



TRAVEL INFORMATION

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 1 속초팔경 중 하나인 학무정은 여러 선비들과 글을 읊고 시를 지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도량이었다
- 2 꿈에 소나무숲이 무성하면 집안이 번창한다는 믿음은 소나무가 하늘높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번영으로 표상한 주술적 관념이다
- 3 우리의 사머니즘적 나무숲 민속이 오래도록 전승되기 바라지만 점차 휴양문화에 밀려나 사뭇 아쉽다 사진은 상도문 서낭당 모습이다
- 4 숲은 신화 속에서 우주의 중심이고 세계의 축이란 관념은 동서양이 따로 없다
- 5 개성에서 정동 쪽인 양양 조산마을 숲속 끄트머리에 동해신에게 풍농풍어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제를 모시는 동해묘(강원도 기념물 제73호)가 있다

글: 류재언(변호사, <협상바이블> 저자)



긴장과 이완 사이 줄타기

협상력 기르기

일하는 모든 순간은 협상의 연속이다. 하버드의 협상 전문가들은 협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경쟁과 대치를 꼽는다. 단순히 이해, 존중, 포용만으로는 협상에서 공동의 인식이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협상을 할 때는 전략과 심리적인 면에서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제1의 조건, 협상 주체

협상 테이블에 들어서기 전 누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동일한 메시지도 전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사결정권자가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나서는 것이 유리한지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시급히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상대방도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한다면 우리 측도 의사결정권자가 협상 테이블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결정권자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실무자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즉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질 때, 협상실무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발뺌할 수 있지만, 우리 측 의사결정권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면 상대방은 집요하게 의사결정권자를 공략해 원하고 싶은 대답을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방어력을 잃지 않는 협상 전략도 있다.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협상실무자 중 한 명과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통해 협상 테이블의 주요한 상황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 신속하게 지시를 주고받는 방법이다. 주로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기업이 자주 쓰는 방법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전략이다.

A Subject for Negotiation

밑망의 달인 ‘굿캅 배드캅’ 전략

◆ 배드캅(Bad Cop)

협상팀 내에서 강경하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역할

◆ 굿캅(Good Cop)

반대로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호적으로 소통하는 역할

협상 대화의 황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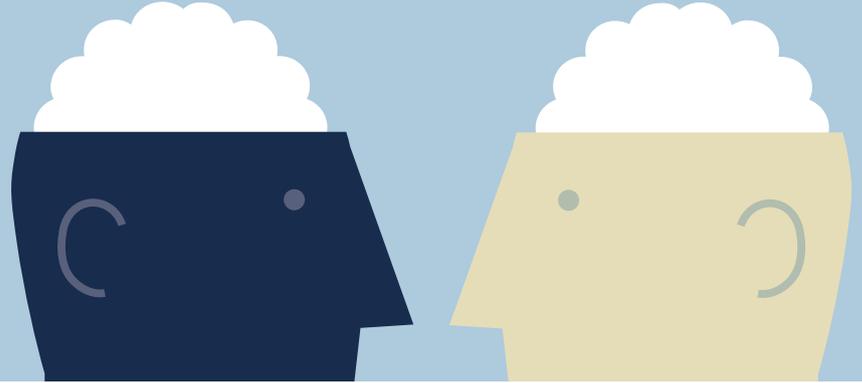
40 : 60

내가 말하는 비율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비율

최악의 협상 피하는 7가지 수칙

- 1 상대방의 첫 제안에 'YES'는 금물
- 2 선입견 갖지 않기
- 3 주어진 권한 밖의 협상 하지 않기
- 4 서둘러 협상 끝내지 않기
- 5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말하지 않기
- 6 협상결렬에 대비해 대안 만들어 놓기
- 7 어떠한 경우에도 비즈니스 매너 지키기



협상 제2의 조건, 시간

A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제안서를 준비했다. 심지어 주말까지 반납하며 내용의 완성도를 높인 뒤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의 제안서를 완성했다. A는 최종본을 일요일 저녁 8시에 고객사 담당자 B에게 이메일로 보낸 뒤 문자를 남긴다.

“제안서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B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안서의 완성도에 감탄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일요일 저녁 8시는 월요일의 조짐이 보이는 시간이다. 이때 업무 관련 문자를 받게 된다면 B는 제안서를 열어 보기 전부터 짜증이 몰려올 것이 뻔하다. 아무리 제안서가 완벽해도 B는 A의 배려 없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인해 부정적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설득에 있어 시간적 감수성은 필수다. 혹시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사전에 고민해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앞선 사례를 보자면 상대방이 가장 집중해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에 메일을 보냈을 때 설득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협상 제3의 조건, 장소

기업인에게도 정치인에게도 협상 장소는 매우 중요하다. 홈그라운드에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지,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제3의 장소가 유리할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홈그라운드, 즉 안방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익숙한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본인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무팀을 갖춘 기업의 계약 담당자가 협상 장소를 본인의 회사 사무실로 정해 협상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 계약 협상 도중 급하게 법률조언이 필요할 때, 담당 변호사를 직접 불러 의견을 듣는다면 협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먼 길일수록 좋다. 직접 찾아오는 경우 상대방은 이미 마음의 빔을 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자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번 거래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생산시설에 직접 방문해 평소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얻을 기회를 얻기도 한다.

제3의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한다. 양측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거나, 비밀 유출 등이 우려되거나 협상력의 무게중심이 기울게 될 우려가 있다면 제3의 장소를 협상지로 정할 수 있다. 🌻

Time

협상시작 5분 안에 이 말은 꼭!

“항상 전화기 넘어 안정감 있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는데 직접 보니 더 신뢰가 갑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업계에서 일 잘하고 꼼꼼하시기로 유명하시더군요.”

“지난주 메일로 금일 미팅 안건을 사전에 공유해주셔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Place

협상 테이블 자리의 전략적 함의

◆ 사각 테이블

서로 대치하고 있는 느낌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된다.

◆ 원형 테이블

적대적인 느낌을 줄이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원형 테이블을 준비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각 테이블에서 자리 배치를 삼각 구도 또는 다이아몬드 구도로 조정해 대체되는 느낌을 줄인다.

S-OIL
변화와 성장의
화학법칙

[오비탈] 이야기

행복의

확률을 높이기

오비탈 법칙

1

존재의 가치

전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함수를 오비탈이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확률이라는 단어에 있다. 일반적인 수학적 정의, 오차 제로에 가까운 과학적 설계에 있어 확률은 과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불확성의 요소다. 하지만 그 불확성을 분석하며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인류는 발전한다.

물리, 화학에서 말하는 원자의 크기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입자다. 원자 크기는 보통 원자핵과 그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전자의 궤도를 포함해 말한다. 따라서 원자의 크기는 원자핵의 약 1만 배 이상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는 원자 하나, 분자 하나도 볼 수 없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궤도 또는 확률적 함수를 오비탈(Orbital)이라 한다. 전자는 원자핵에 비해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지만 원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원자번호가 클수록 전자의 숫자도 같이 늘어나 전자 배치가 달라진다.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원자의 세계에서 전자의 위치는 불확실하지만 원자의 궤도 어딘가에 분명 존재한다. 확실치 않은 궤도의 범위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궤도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오비탈이다. 지구상에 미미한 요소 하나라도 존재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1월
축매

2월
용역

3월
공유결합

4월
탄화수소

5월
오비탈

6월
전이상태론

7월
전자 호스트와
게스트

8월
커패시터

9월
동소체

10월
가시광선

11월
수소

12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오비탈 법칙

2 예측 불가능이 주는 기회

오비탈이 불확정성을 나타낸다 해서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측할 수 없을 뿐이다. 확률과 함수일지라도 화학자들은 오비탈의 개념으로 현대적 원자 구조를 설명한다.

오비탈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자면 불확실한 현재라 말할 수 있다. 수학처럼 분명한 공식과 계산으로 정해진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좋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경험을 쌓아도 원하는 직장에 모두가 취직될 수 없듯,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던들 밝은 미래가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는 너무나 많은 상황과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미래를 기대한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하고 삶의 궤도가 예측 가능하다 해도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될지는 미지수다. 안정된 현실에 안주한다면 장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반대로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도 불행할거라 속단하고 체념한다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



글.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촉매공학박사이자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겸임교수이다. 한국화학공학과
울산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수소산업협회 이사다.

오비탈 법칙

3 불확실성에 거는 기대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무가치해진다.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 미래를 흰히 다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형벌이다. 불확정성 원리는 물리학에서는 애매한 이론이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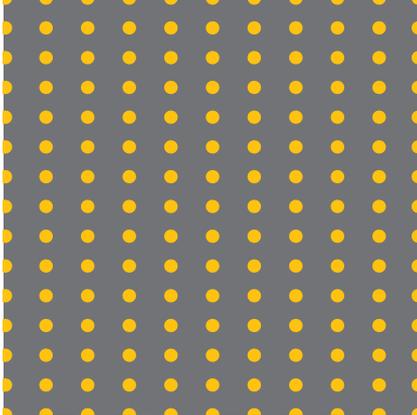
다만 우리는 위치와 속도를 바꾸거나 조절하며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수학에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의 궤도를 지키고 있다면 나와 연결되는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자유로움 속에서도 내 궤도를 지킨다면 불확실의 오비탈은 예측 가능한 긍정적인 미래가 될 것이다. 🌱

화학용어사전



오비탈

화학결합은 원자 사이에 전자 교환을 통해 이뤄지는데,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거나, 전자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함수다. 원자 사이의 오비탈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겹칠 수 있는지를 따져 화학결합의 세기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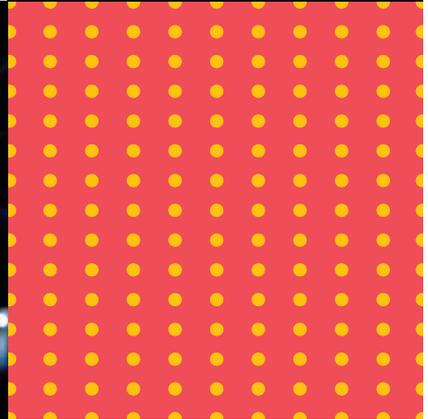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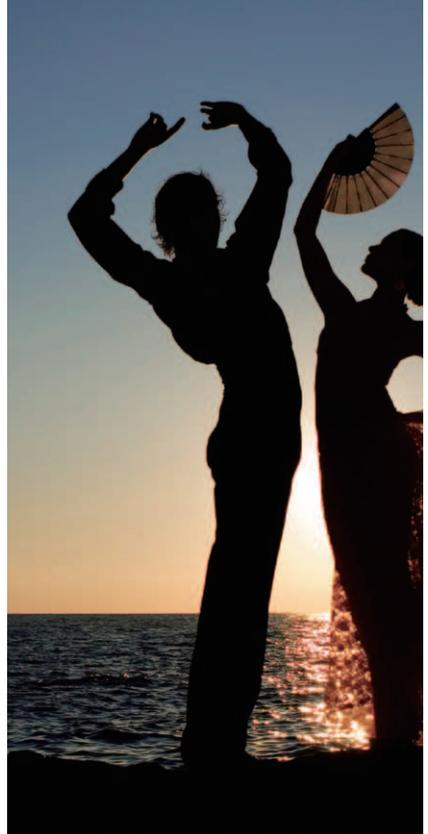


남 자 의 색 다 른 사 생 활



[활동형] 취미 정보

취미는 세대를 불문하고 자아를 깨우는 신선한 자극제다. 최근 남과 다른 멋과 개성을 추구하는 중년층에게 이색 여가활동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늘이 아닌 실내에서 즐기는 스카이다이빙, 열정의 춤사위 플라멩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긴 디제잉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거스르는 취미가 있다.



맨몸으로 훨훨

실내 스카이다이빙

하늘에서 낙하하는 공포심을 짜릿한 스릴 만점 체험으로 바꾼 스카이다이빙이 한층 더 대중적인 스포츠로 다가왔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즐거움을 좇다 간혹 치명적인 사고를 겪을 수 있기에 위험한 스포츠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비행기를 타거나 낙하산을 펼치지 않아도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 바로 실내에서 체험하는 스카이다이빙이다.

윈드터널이라 불리는 높이 20m의 큰 원통 아래에서 시속 300km의 바람이 뿜어져 나오면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처럼 사람이 동동 뜨는 원리다. 오래 전 군사 훈련용 기구로 쓰였던 원통에서 착안한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실제 하늘에서 처럼 공중제비를 돌거나 여럿이 대열을 만들고 공중 춤을 출 수 있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4년 전부터는 세계 대회도 열리고 있다. 대회는 45초간 바람을 타고 연기를 하면 심판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실제 스카이다이빙은 18세 이상이 돼야 가능하지만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4세 아이부터도 가능해 가족 체험으로도 인기 만점이다.

화려한 독무

플라멩코

안정된 직장, 평온한 가정 등 남부럽지 않은 조건의 중년 남성이 언제부터인가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며 춤에 빠져들게 된다. 2004년 개봉한 영화 <셀 위 댄스>의 내용이다. 영화 주인공처럼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에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남자의 춤으로 꼽히는 플라멩코를 권한다.

스페인 예술의 꽃이라 불리는 플라멩코는 빠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리듬에 몸을 맡기는 강렬한 춤이다. 동작이 쉽지 않지만 배울수록 빠져든다는 후기가 대부분인 만큼 힘들어도 춤출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 받을 수 있는 춤이다. 탱고가 파트너와 함께 춰야 하는 춤이라면 플라멩코는 독무가 매력 포인트다. 삶의 애환과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춤으로 밝고 어두운 면이 모두 존재한다. 노래와 무용, 기타로 구성된 종합예술로서 그 원형은 노래로 시작됐지만 무용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여자감이나 리듬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며 근력강화에도 탁월하다. 단기간에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만큼 성취감과 만족도가 크다.

열정 리믹스

디제잉

예전에는 디제이(DJ)가 음악을 선곡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지금은 음원을 선곡할 뿐 아니라 믹싱과 스크래치 등 기술을 통해 음악을 재조합하고 창조한다. 각자 개성을 살려 화려한 영상과 여러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오감을 책임지는 디제이아말로 무대의 꽃이다. 최근에는 평소 클럽을 즐기거나 클럽문화를 잘 알지 못해도 디제잉(DJing) 배우기에 도전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최근 공기업과 대기업, IT 회사에서는 인기 동호회로 꼽힐 만큼 활성화되고 있다. 5~6개월 정도면 취미목적으로는 충분히 높은 실력을 쌓을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해도 연말 각종 모임이나 파티에서 화려한 디제잉을 맘껏 뽐낼 수 있다.

디제잉을 위해서는 컨트롤러, 스피커, 컴퓨터, 헤드폰 등 네 가지 품목이 필수다. 다른 전문 기기를 사용해도 좋지만 다소 고가의 장비들이 많아 입문자라면 컨트롤러로 시작해도 충분하다. 노트북에 있는 음원을 컨트롤러에 연결해 파형이나 BPM 정보를 확인한 뒤 템포와 소리 크기 조절, 구간 반복, 음 왜곡이나 변조 등 효과를 낸다. 유일무이한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오로지 나만의 음악을 창조할 수 있다. 🎧

여기 어때요?

경기도 용인 플라이스테이션

국내 최초 실내 스카이다이빙 시설로 전문 코치가 함께 짝을 이뤄 비행해 초보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플라잉 슈트와 안전모, 고글, 이어플러그를 착용하고 사전 교육을 받은 뒤 비행체험을 할 수 있다. 최대 12명까지 원통에 들어갈 수 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72-17

여기 어때요?

서울스페인무용원

국내에서 스페인 무용의 권위자로 불리는 몰라장 교수와 현직 플라멩코 무용수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관이다. 개인 스타일에 맞춰 플라멩코 맞춤 안무를 훈련하며 취미활동을 넘어 지도자 과정, 자격증 과정, 마스터 클래스 등을 통해 폭넓은 플라멩코 기량을 쌓아갈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535 프린스빌딩 B1

이런 책 어때요?



<오늘부터 디제잉> 장규일 디제이 코디네이터인 저자가 디제잉 입문자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디제잉 가이드북이다. 장비 고르는 법부터 기본 테크닉, 선곡 노하우 등 입문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또한 쉽게 배울 수 있는 QR코드 동영상도 담겨 있어 독학으로 충분히 입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책 어때요?



<플라멩코 이야기> 김준형 플라멩코 공연기획자인 저자가 스페인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등을 여행하며 플라멩코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현지에서 본 플라멩코 공연 감상을 수록해 독자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한다.

여기 어때요?

울산 52MM DJ 아카데미

울산 디제이 레슨 전문 학원으로 다수의 직장인 DJ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수료 뒤 현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와 50명이 넘는 현직 디제이와 소통할 수 있는 모임도 함께 주어져 디제이를 삶 속에서 꾸준히 즐길 수 있다.
주소 울산시 남구 왕생로 100



연금술이 앗아간 화가

연금술 & 파르미지아니노 <목이 긴 성모>

기원전 이슬람 세계에서 시작돼 중세 유럽에 퍼진 연금술은 주술적 성격을 띤 일종의 자연학이었다. 연금술사들은 납이나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헛된 망상만 커질 뿐 금속 성분에 대한 무지로 목숨이 잃는 일이 다반사였다. 파르미지아니노 작품 <목이 긴 성모>에는 화가의 연금술에 대한 집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볼록 거울에 비친 자화상>
1523~1534년·나무판에 유채
지름 24cm·빈 미술사 박물관

시대 잘못 만난 불운의 천재 화가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사 박물관에는 특이한 자화상 한 점 있다. 동그란 나무판 위에 그려진 파르미지아니노(1503~1540)의 자화상이다. 화가가 볼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독특한 설정의 작품이다. '볼록 거울에 비친 자화상'으로도 불리는 이 그림에서 화가는 거울 앞에 손을 바짝 붙여 실제보다 크게 보이도록 강조한다. 화가 뒤편으로 보이는 창도 볼록 거울에 의해 왜곡된 형상으로 뒤틀려 있다. 사실 이 그림에는 하나의 트릭이 있다. 정말로 볼록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화가 얼굴도 일그러진 형상으로 그려졌어야 한다. 그러나 화가는 자신의 젊고 새초롬한 얼굴은 전혀 왜곡하지 않고 단정한 모습으로 묘사

해 놓았다. 이 초상은 파르마에 살던 20대 초반의 파르미지아니노가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스스로를 소개하기 위해 그린 작품이다. 당시 라파엘로의 때 이른 죽음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클레멘스 7세와 그의 신하들은 이 그림을 보고 '라파엘로가 살아돌아온 모양'이라며 크게 기뻐했다.

'볼록 거울에 비친 자화상'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에서도 알 수 있듯, 파르미지아니노는 20대 나이에 교황의 화가가 될 만큼 매우 영리하고 그림솜씨 역시 출중했다. 작업 초창기에는 라파엘로 못지않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는 평을 들었다. 문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전성기 르네상스 화가들의 솜씨가 너무도 탁월했다

글.
이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원경(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는 데에 있었다. 후대의 화가들은 아무리 해도 선대 거장들처럼 완벽한 비례와 균형, 조화를 이룬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여기에 더해 1520년대부터 유럽은 종교개혁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1527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가 로마를 공격하는 사건까지 터졌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파르미지아니노를 비롯한 화가들은 일부러 비틀어진 듯한 형상과 맞지 않는 비례, 기묘한 포즈 등을 그려 자신들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과 차별화하려 했다. 이런 경향을 ‘매너리즘’ 또는 ‘마니에리스모’라고 부른다.

그림에 등장한 연금술의 흔적

파르미지아니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목이 긴 성모>는 마니에리스모가 어떤 경향인지 잘 알려주는 작품이다. 성모의 목은 너무 길고 몸에 비해 머리가 지나치게 작으며, 아기 예수는 금방이라도 성모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듯 보인다. 그림 왼편에 몰려 있는 천사들에 비해 오른편은 텅 빈 듯 공허하다. 기둥 옆에서 두루마리 문서를 펴 들고 있는 성 제물은 괴이할 정도로 작게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파르미지아니노가 미완성으로 남긴 작품이다.

당시 그는 엉뚱하게 연금술에 빠져 각종 실험에 재산을 탕진했다. 계약했던 제단화를 제 때 완성하지 못해 감옥에 가는 등 좌충우돌하며 연금술에 몰두하다, 결국 열병에 걸려 37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목이 긴 성모>에는 파르미지아니노가 연금술에 빠졌다는 증거가 등장한다. 왼편의 천사가 들고 있는 매끈한 은색 병은 당시 사람들이 수은을 담아 두었던 병이다. 천사가 병을 들어 성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파르미지아니노에게 수은이 담긴 병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음이 분명하다. 수은은 연금술에서 자주 쓰인 금속이었으나 수은의 위험성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목이 긴 성모>의 기이할 정도로 늘어진 인물들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파르미지아니노가 연금술 실험 와중에 수은에 중독됐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작은 크기의 성 제물은 그가 수은 중독으로 보게 된 환각이 아니었는지 추측된다.

납, 구리, 수은 등 금속으로 금을 만들어낸다는 연금술은 중세시대 이슬람 과학자들과 15~17세기 유럽 과학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기술이다. 그 와중에 진짜로 금을 만들었다고 나서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는 물론 거짓이었다.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금속의 원자핵 속 양성자와 양성자 수를 바꿔야 하는데 연금술사들의 실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연금술사들은 황산, 인, 질산 등을 발견하고 플라스크나 증류기 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렇다 한들 금을 만들겠다는 목표 자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수은과 같은 위험한 금속을 과다하게 사용해 병을 얻거나 실험 도중 희생된 이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 파르미지아니노 역시 안타깝게도 그 희생양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

<목이 긴 성모>

1534년경 나무판에 유채 219x135cm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도전과 역경 뒤 달콤한 시간

챔피언스 클럽 시상

우리 계열주유소·충전소의 큰 축제인 'S-OIL 챔피언스 클럽' 시상식이 4월 24일 그랜드하얏트인천(인천시 중구 영종해안남로)에서 열렸다. 올해 대상은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한 흥남주유소(전북 군산시 팔마로)가 거머쥐었다. 이를 비롯해 총 52개 주유소·충전소가 뛰어난 운영수준과 판매역량을 기록해 챔피언스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챔피언스 클럽에서는 대상 1개소와 최우수상 4개소, 우수상 37개소에 대해 시상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우리회사와 남다른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최상의 가치실현에 뜻을 모아온 10개소 주유소가 특별상에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장에는 오스만 알 감디 CEO와 안종범 수석부사장을 비롯해

전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지사 및 본사 소속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알 감디 CEO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전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모든 임직원은 수상자 한 명 한 명을 향해 뜨거운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다. 그간 도전과 역경의 시간을 함께한 상생의 파트너로서 각별한 감동을 공유하는 장면이었다. 알 감디 CEO는 인사말을 통해 "경쟁 심화로 더욱 어려워진 경영환경에서도 지난해 에쓰-오일은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내수 점유율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모두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주유소와 충전소 운영인 등 에쓰-오일 가족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계열 주유소와 충전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만찬과 축하무대로 꾸며진 시상식에 이어 주유소·충전소 대표자와 관계자들의 인센티브 투어도 진행됐다. 120여 명이 동참한 이 투어는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의 아름다운 섬, 괌에서 4박5일 동안 이어졌다. 수상자들은 재충전 시간을 갖고 우리 임직원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참가자 취향에 따라 조를 편성하고 세심한 스케줄을 마련해 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우리회사는 '챔피언스 클럽' 선정제도를 비롯해 고객분석시스템 운영, 제휴카드 확대 등 다양한 주유소 지원 프로그램으로 계열주유소·충전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구도일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과 모바일 상품권 판매, 스마일투게더 캠페인 등 특화된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마음에 한층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



2019 챔피언스 클럽 수상처

대상

흥남주유소(박청동 대표.전북 군산시 팔마로)

최우수상

백산주유소(문성호·문성필 대표.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대신주유소(김을태·전귀자 대표.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유)그린주유소(박재관 대표.충북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동도LPG충전소(조삼래 대표.대구시 동구 안심로)

특별상

서안산주유소(임옥경 대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흥대로)
 대원주유소(김유경 대표.경기도 평택시 지산천로)
 동화주유소(배경화 대표.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씨제이대한통운(㈜직영 성민주유소(박근태·손관수 대표.부산시 강서구 가락대로)
 동대구터미널주유소(배성훈 대표.대구시 동구 화랑로)
 삼부주유소(김석두 대표.전남 여수시 해산1길)
 조형주유소(김남권 대표.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푸른솔주유소(김수현 대표.광주시 광산구 고봉로)
 신세기주유소(신애순 대표.제주도 서귀포시 일주서로)
 학성주유소(이민수 대표.충남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우수상

오복주유소(유진원 대표.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정해주유소개발(㈜인천주유소(정용순 대표.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유정주유소(김영제·김인수 대표.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성산주유소(노경조 대표.부산시 강서구 생곡로)
 부성주유소(곽병수 대표.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제일주유소(조언일 대표.경남 창원군 남지읍 남지중앙로)
 (주)학하목상셀프주유소(황인식 대표.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주)현충사오일주유소(이민재 대표.충남 아산시 염치읍 이순신대로)
 월명주유소(김정규 대표.전북 군산시 해망로)
 세준주유소(허태성·전경희 대표.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중대로)
 태성주유소(윤자경 대표.인천시 중구 운중로)
 서평택IC셀프주유소(백상현 대표.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불당길)
 대림주유소(도경욱 대표.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장여로)
 대성주유소(임용범 대표.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곡로)
 쌍용장원주유소(라성규 대표.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
 관동주유소(김홍갑 대표.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대호주유소(서성용 대표.부산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신천주유소(김상태 대표.울산시 북구 산업로)
 봉덕탑주유소(정항근 대표.대구시 남구 봉덕로)
 평화주유소(조동규·이성애 대표.경북 상주시 화서면 영남제일로)
 (주)서광해맞이주유소(김기현 대표.경북 영덕군 병곡면 동해대로)
 경주고속주유소·충전소(박상주 대표.경북 경주시 강동면 산업로)
 (주)경상석유 마창주유소(백대열 대표.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태양주유소(류미업 대표.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옥천셀프주유소(정용길 대표.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삼성GOOD주유소(윤태군 대표.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금정주유소(김재인 대표.충북 진천군 문백면 생거진천로)
 (주)에스대시클럽주유소(최민원 대표.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금동주유소(최희용 대표.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로)
 도청주유소(이규규·김은미 대표.전남 목포시 녹색로)
 (주)관악석유 청강주유소(김창희 대표.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구도일주유소 대송햇살(박상갑 대표.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로)
 (주)정원가스(임만열 대표.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동방산업(주)(김창래 대표.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주)팔달에너지(박민규 대표.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주)일광(추병관 대표.충북 충주시 평고리산길)
 삼례LPG충전소(박찬연 대표.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S-OIL NEWS

사우디아람코 우수 합작투자기업 어워드 3년 연속 수상

사우디아람코가 수여하는 우수 합작투자기업 어워드(2019 President's JV Excellence Awards)에서 올해 우리회사가 에너지관리 분야 1위 (Best Performance)와 설비관리 분야의 2위(Runner-up) 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4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의 아람코 본사에서 진행됐다. 올해 시상에는 사우디아람코 합작사·자회사 중 총 11개사가 초청됐다. 사우디아람코는 해마다 전 세계에 포진한 모든 합작투자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 시상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경영의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안전환경보건·에너지·설비 등 각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회사에게 최우수 실적상, 전년 대비 가장 탁월한 개선을 보인 회사에게 최우수 개선상이 돌아간다. 우리회사는 2017년 에너지 부문 최우수 실적상과 2018년 안전환경보건·에너지 부문의 최우수 실적상·설비 부문의 최우수 개선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중국 상해 LNG2019 콘퍼런스 참여

천연가스 콘퍼런스 'LNG2019'가 4월 1~5일 중국 상해 세계엑스포 전시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류열 사장이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여해 LNG 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짚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세계가스총회(WGC, World Gas Conference)·가스텍(Gastech)과 함께 국제가스연맹(IGU)이 주관하는 가스 산업계의 세계 3대 콘퍼런스·전시회 중 하나다. 글로벌 천연가스 산업을 이끄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LNG 시장·산업의 경향을 살피고 변혁과 성장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에너지 산업의 현실 속에 LNG가 차지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진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류 사장은 2일 열린 '천연가스 시장 성장과 지속가능성(LNG Market Growth and Industry Sustainability)' 주제의 세션에 참여해 우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반과 LNG 구매자로서 시장에 참여하게 된 배경, 향후 LNG 도입 확대 가능성,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LNG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뒤이어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LNG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선·발전시킬 점 등 LNG 구매자 입장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의 해안과 새로운 도전 기회 등을 다뤘다.



울산대병원 '닥터 카' 후원 협약

우리회사가 중증 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능하는 닥터 카(Doctor Car) 운영을 위해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30일 울산대병원에서 진행됐다. 박봉수 사장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정윤기 울산대학교병원장이 함께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하고 연간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달리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카는 재난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중증 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 의료진이 구급차에 탑승, 출동해 처치와 전문의약품 투여, 이송 등으로 외상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구축된 시스템이다. 울산대병원이 2016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범 운영해 왔으나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올 1월 운영 중단 위기를 겪었다. 이에 우리회사가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울산시·울산대병원과 협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울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닥터 카의 안정된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 후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서울시민 등이 참여하는 서울사회복지걷기대회가 4월 23일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우리회사가 서울특별시·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과 함께 후원하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대회다.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현장에는 6천여 명이 참가했다. 선진영 전무는 평화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에 이르는 왕복 4km 코스 걷기대회에 동참하고,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이벤트·홍보 부스 운영, 축하 공연 등 현장의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민해경 콘서트>

7080세대의 '영원한 디바', 가수 민해경이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무대에 섰다. 4월 24일 저녁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민해경 콘서트>에 관객 300여명이 찾아와 추억의 노래로 소통했다. 민해경씨는 1981년에 데뷔해 90년대 초반까지 댄스 팝과 발라드 장르의 다채로운 곡으로 정상급 인기를 누렸다. <보고싶은 얼굴>, <환희>, <그대 모습은 장미> 등 열창에 따라 관객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가수의 호연을 받았다. 민씨는 1시간여 동안 무대를 장악하고 보조출판 2명과 어울려 변함없는 실력을 펼쳤다. 우리회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본사 대강당을 무료 개방하고 다방면의 예술가를 초청한 가운데 공연을 개최한다.

봄바람 타고 아픔은 저 멀리로

제주 햇살나눔 캠프

글. 신영철(CRS/운영지원팀)



희귀 난치성 질환과 싸우는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햇살나눔 캠프가 제주 일원에서 개최됐다. 4월 25~27일 열린 이번 캠프에는 환아와 가족 60여 명과 햇살나눔봉사단,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동행했다. 우리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햇살나눔 캠프를 개최해 오면서 환아가족과 봉사자 1천여 명의 참여 속에 생명 존엄과 완치의 희망을 되새겼다. 🌻



Day 2

흥겨운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완치 희망을 전하는 편지낭독 등 참가자들의 웃음과 눈물이 교차한 친교의 시간이 마련됐다

Day 1

캠프단은 말(馬)과 관련해 재미있는 경험이 기다리는 '더마파크'와 천연염색 공방에서 색다른 시간을 보냈다



Day 3

참가자들은 '신화테마파크'에 들러 놀이기구를 타고 사진촬영을 하며 2박3일의 알찬 여정을 즐겼다



임직원 동정



05.01

신동열 부사장(마케팅총괄 보좌역)→
퇴임·Special Assignee(Domestic Fuel
Sales Specialist) 임명
김종보 상무보(대행, 중부지역본부장)→
상무보(중부지역본부장)

정기 승진

04.01

사무직

2급→1급(팀리더)

박형운(HYC공정팀리더)·김윤하(탈황1부
장)·문현용(FCC1공정팀리더)·조영진(제품운
영부장)·허민구(공정Upgrading추진부장)·
이명균(기계설계팀리더)·오정대(검사진단
팀리더)·황진욱(프로젝트기술2팀리더)·노
시경(광고팀리더)·박이흠(서부네트워크관
리팀리더)·정환섭(강릉지사장)·김지영(창원
지사장)·천준길(포항지사장)·반기석(청주지
사장)·박광수(광주지사장)·박병진(아산지사
장)·안진규(고분자제품개발팀리더)·손길상
(생산회계팀리더)

3급→2급

양태성(HYC부 HYC과장)·박재형(탈황1부 탈
황1과장)·권길상(FCC1부 FCC1과장)·홍승완
(FCC2공정팀)·신봉수(FCC2부 FCC2과장)·
서희영(FCC2부 Alkylation2과장)·이성수(탈
황3부 탈황3과장)·김용기(아로마틱생산2부
아로마틱생산2과장)·최동범(PP생산부 PP
생산과장)·이효석(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장)·이재현(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장)·서
형희(제품출하부 항무방재과장)·김남수(생
산조정팀)·김진원(공정Upgrading추진부 공
정혁신2과장)·최준걸(이익개선팀)·송원우
(공정자동화팀)·이준희(계전부 계기2과장)·

한기원(계전부 계기3과장)·유인호(장치설계
팀)·임정욱(계전설계팀)·박만수(프로젝트관
리팀)·허성훈(프로젝트기술1팀)·정장식(프
로젝트기술2팀)·정기식(생산최적화팀)·김영
규(수급운영팀)·김진욱(전사수급최적화팀)·
신정국(경영관리팀)·김종일(부동산관리팀
TS&D Center 건설파트)·김정연·이지혜(구
매관리팀)·곽진희(신규사업팀)·박진우·민관
식(시설투자기획팀)·곽기원(고객서비스팀)·
조준영(소매관리팀)·김병태·양승직(영업전
략팀)·구자현(브랜드마케팅팀)·장재운(네트
워크개발팀)·한정욱(대리점영업팀)·서호경
(법인영업팀)·박민규(수송팀-배차센터)·정
진배(중부영업지원팀)·김석연(동부네트워
크관리팀)·박득순(용인지사)·박승수(부산지
사)·박상진(창원지사)·이일섭(안동지사)·곽
창규(대전지사)·유제호(청주지사)·김복근·
송현호(광주지사)·신영진(아산지사)·김동인
(해외마케팅전략팀)·홍상영(해외운영팀)·서
형주(싱가폴지사)·최승민(윤활운영팀)·백호
(윤활유사업팀)·안진수(BasicChemical운
영팀)·이장재(OlefinDownstream사업기획
팀)·박재홍(자금운영팀)·전창현(프로젝트금
융팀)·배재승·정해동(관리회계팀)·박성식·서
수연(신용관리팀)

4급→3급

최연대(정유생산부 정유2과장)·김주현(윤활
생산부 윤활생산1과장)·박갑동(탈황1부 유
황1과장)·이영걸(탈황1부 동력3과장)·박승
희(탈황2부 탈황2과장)·김현민(FCC2공정
팀)·이홍규(올레핀공정팀)·김황호(제품출하
부 항무방재과)·김청일·최률호·조정현(생산
조정팀)·류희조(공정Upgrading추진부 공
정혁신1과장)·김수호(설비관리계획팀)·김대
겸(장치부 장치1과장)·이현규(연차보수팀)·
진재환·이광찬(계전설계팀)·김성민(검사진
단팀)·김태현(검사기술팀)·이세영(기획분석
팀)·김민희·박상찬(원유팀)·유영준·장형준
(원유용선팀)·김민영(인사팀)·박정민(IT기

획팀)·조용민(영업전략팀)·김형수(브랜드마
케팅팀)·류승진(직영네트워크관리팀)·김성
준(법인영업팀)·한기종·소정훈(수송팀-배
차센터)·양선희(중부영업지원팀)·손대검(서
부네트워크관리팀)·신수연(해외마케팅전략
팀)·나누리(정유Light제품팀)·유준기(정유
Heavy제품팀)·최문석(해외운영팀)·오초희
(BasicChemical운영팀)·정승욱(상해지사)·
임성남(용도개발/기술지원팀)·홍성길(고분
자제품개발팀)·이민규(자금계획팀)·이성훈
(세무팀)·박은정(CEO실)

5급→4급

정호규·곽동업(정유/윤활공정팀)·전영준
(HYC공정팀)·문승현·정종열(FCC1공정팀)·
김동한·박관우·심동규·김수형·김태형(FCC2
공정팀)·지현용(아로마틱공정팀)·박형욱·이
상용(올레핀공정팀)·이태왕(PP생산부 PP
생산과)·박찬수·최승범(생산조정팀)·이형준
(공정Upgrading추진부 공정혁신2과)·강찬
우(에너지관리팀)·이은규·김상일(설비관리
계획팀)·강태원(기계기술팀)·이병승(계전
기술팀)·신동진·최준원(연차보수팀)·한도원
(장치설계팀)·이석진·방태환(기계설계팀)·
김태균·유병찬(계전설계팀)·윤정호(검사기
술팀)·박성재(프로젝트건설3팀)·김병훈(생
산최적화팀)·조성민(원유팀)·김희수·김민성
(수급운영팀)·박에녹(안전정책팀)·김병기
(인사팀)·이상훈(복리후생팀)·이태우(IT운
영팀)·정성호(생산구매지원팀)·조한길(환경
팀)·이은지(판매계획/분석팀)·한재백(대리
점영업팀)·김수현(남양주지사)·박원민(포항
지사)·윤도현(아산지사)·이원일·이길웅·박
준영(윤활유사업팀)·임수일(올레핀영업팀)·
김형진·김경우·이유진(PP영업팀)·백기선
(Polymer&Intermediate운영팀)·조설아·조
이형·최윤정(Cheical기술개발기획팀)·박
정우(용도개발/기술지원팀)·안우근(회계팀)·
신정현(생산회계팀)

정기 승진

일반사무직

일반사무직1급→일반사무직M급

박영희(인사후생팀)·박수환(경영관리팀)·최형주·홍경미(복리후생팀)·김혜숙(총무팀)·이예일(자금운영팀)·박현주(생산회계팀)

일반사무직2급→일반사무직1급

이하영(HR기획팀)·허영선(용인지사)·최진희(남양주지사)

일반사무직3급→일반사무직2급

임영주(네트워크강화팀)

일반사무직4급→일반사무직3급

추솔잎(정유Heavy제품팀)·박혜미(유통운영팀)·윤유림(관리회계팀)

생산직

계장→과장

강병호(동력부 동력2과 선임계장)·백태옥(탈황1부 유황1과 선임계장)·배준규(탈황1부 동력3과 선임계장)·임종익(탈황2부 동력4과 선임계장)·윤동욱(FCC2부 Alkylation2과 선임계장)·심철흠(아로마틱생산1부 PX생산1과 선임계장)·안정원(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 선임계장)·김동진(연구개발팀)·정동선(계전기술팀)·정호선(환경관리팀)

대리→계장

김기동(유통생산부 유통생산1과)·김재한(유통생산부 유통생산2과)·남민태(HYC부 HYC과)·송현호(HYC부 HYC과)·이상철(FCC1부 FCC1과)·김재창(FCC1부 Alkylation1과)·이현욱(탈황2부 탈황2과)·허동욱(FCC2부 ERU과)·정성환(FCC2부 Alkylation2과)·우래구(아로마틱생산1부 아로마틱생산1과)·김민석(PP생산부 PP생산과)·송경현(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황두현(연구개발팀)·안재종(설비관리계획팀)·강일식(기계부 기계1과)·김현연(총무보안팀)·강홍길(환경관리팀)·이호기(수송팀-공장파견)

주임→대리

장윤식(정유생산부 정유1과)·최정석(정유생산부 정유2과)·박영욱(유통생산부 유통생산1과)·이상걸(HYC부 HYC과)·지광수(HYC부 VDU과)·김도경(HYC부 정유3과)·권원필(탈황1부 유황1과)·윤성민(FCC1부 FCC1과)·오홍석·정문성·이정민·전영민(FCC1부 Alkylation1과)·이현수·한도훈(탈황2부 유황2과)·김민호(FCC2부 FCC2과)·김광진·김민호(FCC2부 Alkylation2과)·신동훈(아로마틱생산2부 동력5과)·손정원·황정운(PO/MTBE생산부 PO생산과)·김순용(PP생산부 PP생

산과)·김재호·전종민·서윤국(제품출하부 해상출하과)·박석근(계전부 전기과)·서규식(장치부 장치2과)·조보람(계전설계팀)·남부성(검사진단팀)·이수연(대외업무팀)·김남원·안재일(인천저유소 운영담당)

운전원→주임

고병석(정유생산부 정유2과)·김지윤(유통생산부 유통생산1과)·박성진(동력부 동력2과)·김민욱·이갑상(HYC부 정유3과)·김연낙(탈황1부 동력3과)·변민석(탈황2부 탈황2과)·정지환(FCC2부 Alkylation2과)·박도현(아로마틱생산1부 아로마틱생산1과)·김범준·이호준(아로마틱생산1부 PX생산1과)·이동운(아로마틱생산2부 PX생산2과)·한상욱(PO/MTBE생산부 PO생산과)·손영득·원기연·정찬형·조치현·최치연(제품운영부 제품운영1과)·김민준·이건오(제품운영부 제품운영2과)·황준서(공정자동화팀)·김용수(기계부 기계1과)·정도현(기계부 기계2과)·박정훈(기계부 기계3과)·김재연·최영륜(장치부 장치1과)·황태진(검사진단팀)·김대원·김종천·박철웅·신철호·이준우·정우재·조정윤(품질관리팀)·김학훈·허현(인천저유소 운영담당)·심범식(인천저유소 관리담당)·류제민(CHEMICAL기술개발기획팀)

해외유학 파견

05.01

전창현(2급, 프로젝트금융팀)→인력개발팀 부(휴직)

보직변경

04.19

신병하(계장.계전기술팀)→
HYC부 VDU과

박장환(주임.연구개발팀)→
정유생산부 정유2과

김덕원(운전원.계전부 계기3과)→
계전기술팀

05.08

배재승(2급.관리회계팀)→자금계획팀

이민규(3급.자금계획팀)→프로젝트금융팀

송현철(4급.프로젝트원가관리팀)→
관리회계팀

입사

04.16

이희영(3급.프로젝트기술2팀)

04.29

한규현·지영선·이건주(3급.프로젝트기술1
팀)·김지훈(3급.프로젝트추진1팀)

05.02

안성철(2급.프로젝트기술1팀)

퇴직

04.30

이철한(운전원.정유생산부 정유1과)

정년퇴직

04.30

신보균(2급.중부네트워크관리팀)

결혼

04.13

원기연(제품운영1과)

04.20

김순현(FCC2과)

04.27

이지호(생산회계팀)
김민균(프로젝트추진3팀)
김창완(Akylation1과)

04.28

박태현(ERU과)
조성은(장치1과)
김현태(유황2과)

05.04

이민규(윤활생산1과)

05.11

김학훈(인천저유소)
남지혜(자금계획팀)
전태현(PO/MTBE생산과)

05.12

김강현(윤활R&D팀)
김태현(총무팀)
김혜수(구매팀)

05.18

노민섭(환경운영과) 아들

부음

04.05

이상훈(BasicChemical운영팀) 부친

04.06

성상중(제품운영1과) 빙부

04.07

임현진(정유1과) 조부
김종열(자재관리팀) 빙부

04.08

김근열(전기과) 부친

04.09

최희성(윤활생산2과) 외조부

04.20

이영호(영업전략팀) 부친

04.22

문병수(해상출하과) 모친

04.23

최호성(품질관리팀) 부친

04.25

이명석(품질관리팀) 모친

04.29

윤중호(Polymer&Intermediate운영팀) 부친

05.02

양경문(창원지사) 빙부
신종훈(동력6과) 외조모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핵심가치 히어로> 이세용 사우(인천지사)
최고의 성과 비결인 '배려'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송유호(품질관리팀)



<고전 속 핵심가치> 최고 - 대인호변(大人虎變)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이재용(용인 웰컴LPG충전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달리는 희망주유소> 고품격월드주유소
어려운 시장 환경을 이겨나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김진숙(서탄주유소.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두런두런 이야기방> 미안마 여행기
언젠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다루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박준용(신용관리팀)



<꽃청춘 수학여행> 태국 방콕 쿠킹 클래스
미식 여행을 꼭 한번 떠나고 싶어요. 정영길(탈탈1과)



<마을숲을 걷다> 경남 하동 송림 & 편백림
완연한 봄을 맞아 아이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허강미(원주지사)



<성장달력> 분석력 기르기
훈련으로 습관을 만들어 잠재한 능력을 활용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희순(성원주유소.충남 아산시 순천향로)



<취미탐구생활> 실리형 취미 정보
취미로 재테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이기에 유용합니다. 석광익(품질관리팀)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총 다섯 군데)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나 잘못된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써주세요.

01

뜻깊은 날 자리를 빛내주신
① 내·외빈 ② 내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02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10분 앞당겨
① 끝내겠습니다. ② 마치겠습니다.

4월호 퀴즈 정답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퀴즈 당첨자

블루투스스피커

이든해솔(제품운영1과 이상훈 사우 가족)·
박연호(품질관리팀)·유태원(계기1과)·박상욱(기계설계팀)

휴대폰보조배터리

임종익(동력4과)·김육현(유황1과)·
김병대(아로마택생산1과)·조영식(계기3과)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01

이 카드에는페이백
기능 있나요?
→
이 카드에는
'보상 환급' 기능 있나요?

ρ

자금 회수, 보상 등을 의미하
는 영단어 페이백(payment)
을 다듬은 우리말입니다. 소
비자나 구매자에게 지불 금
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
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02

불경기일수록 업무에
①전력해 ②진력해주길
바랍니다.
→
불경기일수록 업무에
'진력해' 주길 바랍니다.

ρ

'있는 힘을 다한다'는 동사
①진력(盡力)과 달리, ②전
력(全力)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뜻하는 명사로서 '전
력을 다하다'로 표현해야 합
니다.



올해 사보 표지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스-오일 리더의 일하는 방식(S-OIL leaders' way of working) 캠페인의
세부 항목들을 한 컷 그림으로 구성해 채워갑니다.